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2842

김시습의 작가의식 연구

-金鰲新話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uthor's Consciousness of Kim Si-Seup

-With priority given to 『Gumoshinhwa』

2006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정 미 현

김시습의 작가의식 연구

-金鰲新話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수 중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5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정 미 현

<목차>

Ⅰ. 머리말 ····· 1
1. 연구 목적 ····· 1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 방법 ····· 2

Ⅱ. 작가의식의 형성 배경 ····· 7
1. 불우했던 환경 ····· 7
2. 패도가 횡행하던 시대 ····· 11
3. 방외인의 처지 ····· 13

Ⅲ. 작가의식의 실현 내용 ····· 16
1. 원통함의 고발 ····· 16
2. 이상 세계 표현 ····· 19
3. 유불도의 융합 ····· 22

Ⅳ. 『금오신화』에 투영된 자아반영의식 ····· 28
1. 생애 반영 ····· 28
2. 욕망 반영 ····· 35

Ⅴ. 『금오신화』에 투영된 현실비판의식 ····· 41
1. 여인들의 절의 ····· 41
2. 지도자의 애민 ····· 45
3. 민족의 역사 ····· 48

Ⅵ. 『금오신화』에 투영된 현실초월의식 ····· 52
1. 이상세계 설정 ····· 52
2. 비극적・비현실적 결말 ····· 57

Ⅶ. 맺음말 ····· 61

참고문헌 ····· 64

ABSTRACT

A Study on the Author's Consciousness of Kim Si-Seup

Jeong Mi-Hyun
Advisor : Prof. Kim Su-Jung Ph.D.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Kim Si-seup, who was born in beginning of Josun Dynasty, is a great literary person, miserable politician and philosopher who was anxious about his country. He was an elite whose future was promising because of his inborn talent. However, he passed away without making his talent shown properly due to confusing history. The thing he relied on to communicate with the world was literature itself. Kim Si-seup intended to represent his suffering from his generation and his life surrounded by confusion and contradiction through his literary works. This study is to speculate his peculiar mind on writing generated from his painful life.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s his life, social and literary background as backgrounds that helped to form his literary mind. Miserable family background, painful situation of that generation, literature of outsider which could not join official servants or retired gentlemen worked as main factors which helped form his literary mind.

This study describes the contents to realize literary mind because of such background factors in aspects of departed souls, literature and thoughts. Departed souls are a main factor in Kim Si-seup's literature. The departed souls are divided into official and private, and through their appearances, they accused injustice and grief of reality. In literature, he thought his work a mean to escape from conventional view of literature, agree virtuality and exciting feeling and express a utopian world. In thoughts, he intended to express his subjective sense of value through combination of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Based on this general literary mind, this study speculates *Gumoshinhwa* which is very valuable in literary history. And it studies his literary mind specifically and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follows:

1) ' Self-reflecting mind ' is Kim Si-seup himself in *Gumoshinhwa*. We can find his life and desires in characters and languages of heroes in *Gumoshinhwa*. It can be said that all the heroes in this work are his other self. A lonely Confucian who could not make the best use of his ability is reproduced through his works.

2) ' Reality Criticism ' is roughly categorized into integrity, love to the people, and historical mind. Integrity is found in a woman in < Manboksajeopoki>, Choi Rang in < Leesaenggyujangjeon >, and Kissinyeo in < Chiyububyokjungki >. Such integrity criticized the ruling party at that time who flattered the King Sejo's government and gave up integrity and true feeling. The love to the public is specifically exposed through < Namyeombujooji >. It criticizes lost reality of the true attitude as a king by

explaining qualification of the king in various angles. Historical mind is revealed through < Chiyububyokjungki >. It criticizes distorted and contradictory consciousness on history by Kijajoseon based on traditional mind on history.

3) ' Reality Transcendence ' is found at utopian world and the tragic and unreal ending. < Namyeombujooji > describes organized world governed by a honest king through Yeombujoo, and < Yongkungbuyeonrok > describes literary kingdom in which he can exercise his literary talent at its fullest and his desires are satisfied. The tragic and unreal ending of the works reflect his reality transcendence ' actively.

1. 머리말

1. 연구 목적

김시습은 세종 17년(1435)에 태어났다. 김시습이 살았던 15세기는 정치적으로는 왕조의 교체기였으며 사상적으로는 불교에서 유교질서 체제로 바뀌고, 문학적으로는 관료적인 문학과 처사적인 문학이 공존하는 과도기였다. 이른바 정치, 사상, 문학 등의 구조에 일대 변혁을 이루었던 시기이다. 이러한 혼돈과 모순의 시기로 말미암아 김시습의 삶은 그리 평탄하지 못했다.

문학은 이런 김시습에게 있어 현실에서 벗어나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가 되었고, 그의 이상을 반영하는 통로가 되었다. 즉, 김시습은 작품세계를 통해 혼돈과 모순으로 둘러싸인 사회와 자신이 겪은 삶의 고뇌를 형상화시켜 나타내었던 것이다. 그가 남긴 주요 작품으로는『梅月堂詩集』·『梅月堂詩四遊錄』·『大華嚴法界圖序』·『太極圖說』·『法華經別讚』·『十玄談要解』·『金鰲新話』등이 있다. 이 가운데 단연 주목받는 것은『금오신화』이다.

『금오신화』는 그 내용이 귀신, 용궁, 신선, 사자 등에 대한 것으로 다분히 황당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일종의 傳奇소설이다. 총 다섯 편의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표기가 한자로 되어있는 한문소설이기도 하다. 또한,『금오신화』는 작가 김시습이 중국의『剪燈新話』에 깊은 감명을 받고 창작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설명들은『금오신화』를 나타내는 부수적인 요소일 뿐, 근본『금오신화』를 주목하게 하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금오신화』가 우리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한국문학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소설이라는 데에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견해는 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지만,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금오신화』는 한국소설의 효시라는 점에서 서사문학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한국소설의 출발점이 갖는 문학사적 성격을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금오신화』의 문학사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금오신화』를 중심으로 작가 김시습의 의식세계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한 작가의 작품 속에는 반드시 작가의 의식과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현실이 모순투성이 일수록 작가는 그가 추구하던 이상적인 세계를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작품 속에 나타내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조선전기의 천재 문인이었던 김시습의 의식을 문학사적으로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금오신화』에서 찾아보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 된다.

본 연구는 먼저, 작가 김시습이 자신만의 고유한 작가의식을 형성하게 된 요인으로 생애와 정치 · 사회적 배경, 문학적 배경을 언급해 보겠다. 다음으로, 어떠한 사상과 소설관을 가지고 작품 창작에 임했는지 김시습의 전반적인 작가의식에 대해 고찰한 다음, 마지막으로 작품 『금오신화』안에 담긴 작가의식의 구체적인 면을 살펴봄으로써, 김시습의 작가의식에 대한 정확한 조명을 꾀하고자 한다.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 방법

한국문학사에서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일찍이 관심 있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상당한 연구 성과가 있었다.[1)]

초기에는 주로 『전등신화』와의 비교문학적인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대표적인 학자로서 박성의 교수가 있는데, 그는 『금오신화』에 영향을 끼친 중국소설 『전등신화』의 영향에 관해 비교문학적 측면에서 다루었다.

그러나 한국의 서사문학적 전통을 간과한 채, 단순히 모방설을 강조한데 대한 학계의 반성이 대두되면서 『금오신화』를 보는 시각도 달라지게 되었다. 『금오신화』가

---

1) 최남선, 「금오신화해제」, 『계명』 19호, 1927.
박성의, 「비교문학적 견지에서 본 금오신화와 전등신화」, 『고려대학교 문리논집』 제2호, 1958.
이재수, 「금오신화논고」, 『이병기박사송수기념논문집』, 1966.

중국소설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기는 하였지만 이것이 김시습의 독창적인 사상과 정서로 말미암아 창조적으로 형상화되었다는 연구방향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방향 아래 『금오신화』연구는 기존의 협소한 연구에서 벗어나 더욱더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하게 되었다.

먼저 김시습의 생애와 사상의 변모를 다룬 작가론이다.

김시습의 생애와 사상을 다룬 작가론은 비교적 충실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고 하겠다. 특히, 정병욱 교수와 정주동 교수의 연구는 김시습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병욱 교수는 「김시습연구」를 통해 김시습을 방황하는 儒佛교체기의 지식인으로 바라보고, 김시습의 생애와 사상을 역사적인 상황에 밀착시켜 파악하였다. 또한 김시습에 대해 인생을 부정하면서 가증할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리적 갈등으로 번민하는 현실을 작품화 했던 문학가로 파악하였다.[2] 정주동 교수는 『매월당 김시습 연구』에서 인물론과 작품론으로 나누어 김시습에 관한 내용을 방대하게 다루었으며, 김시습이 불교 신자였음을 강조하여 그의 문학이 불교적인 색채로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하였다.[3]

또한, 작품의 구조와 의미를 새롭게 보는 작품론이 있다.

이에 관한 대표적 연구로는 「현실주의적 세계관과 금오신화」[4] 「소설의 성립과 초기소설의 유형적 특징」[5] 「금오신화의 신연구」[6] 「한국초기소설의 도선사상」[7]등이 있다.

특히, 임형택 교수는 『금오신화』가 김시습의 현실주의적 세계관을 반영한 것으로 보았다. 김시습의 이러한 현실주의적인 자세는 인간의 삶을 중시한 결과 문학적인

---

2) 정병욱, 「김시습연구」, 『한국고전의 재인식』, 홍성사, 1979.
3) 정주동, 『매월당 김시습연구』, 민족문화사, 1983.
4) 임형택, 「현실주의적 세계관과 금오신화」, 『국문학연구』 13, 서울대학교 국문학연구회, 1971.
5) 조동일, 「소설의 성립과 초기 소설의 유형적 특징」, 『한국학논집』 3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1976.
6) 설중환, 「금오신화의 신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1.
7) 최삼룡, 『한국초기소설의 도선사상』, 형설출판사, 1982.

측면에서 비극성을 낳게 하였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최삼룡 교수는『한국초기소설의 도선사상』에서 김시습이 저작한『금오신화』가 과연 그의 佛心을 표현하고 있는 문학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후, 만약 그가 儒心으로 일관한 선비로서의 정신에 철저하였다면 그의 행적에 도선가적 異人으로서의 전설은 개입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며, 仙家書에 보이는 조선 丹學派로서의 그의 선험적 위치 또한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를 제기함으로써 작품『금오신화』는 낙오 당한 인생의 과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김시습의 자기구제의 몸부림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이혜숙, 장선희, 최일범, 배종호 등의 연구 논문 또한 김시습의 이 같은 도선적 면모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8)]

설중환 교수는 조선 초의 시인이며 작가로서 문학사적 위치가 뚜렷한 김시습에 대한 작가론적, 작품론적, 비교문학적인 제 연구를 수행하면서 총체적인 분석을 꾀하였다. 그는 김시습을 순수한 문학가로서 파악하여 그의 문학적인 면의 연구가 더욱 충실해져야 함을 강조하였고, 불승이면서 유학자로서 절의를 지키려고 했고 이상주의자이기도 했던 김시습에 대해서는 양면적인 입장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금오신화』의 각 작품들은 모두 현실의 김시습과 이상의 김시습이 동시에 나타나서 이상이 현실을 이기고 꿈을 이루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하여 작품의 결말을 무의식적 꿈이 이루어지는 초월의 세계로 나아간다고 보았다.[9)]

이와 같이 김시습 문학의 연구는 작가론, 작품론, 비교문학론에 있어서 상당한 업적이 진척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거의 동일한 자료 즉,『매월당집』에 수록된 사상적 논설들과 작품 자체의 글자 해석에 근거하여 김시습의 사상을 해석하고 있음에도 각기 상이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가 연구하고자 하는 '김시습의 작가의식에 관한 연구'도 학자들에 의해 상당

---

8) 이혜숙,「청한자 김시습의 사상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장선희,「김시습 문학의 도선사상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최일범,「매월당의 철학사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9) 설중환,「금오신화의 신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1.

한 연구 성과를 이루었다.[10] 작가의식에 관한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논의가 되어 왔다. 서규태는 금오신화가 지닌 비극적 결말 구조에 초점을 두고 작품의 비극적 전개양상이 김시습의 자유의지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았다. 김갑진은 금오신화의 인물구조, 사건의 결말구조, 공간구조를 분석함으로 김시습의 작가의식을 논의하고 있다. 노영미는 작가의식을 형성하게 된 배경을 주로 작가와 작품의 주변에서 검토하고 있다. 즉 김시습이 살던 당시의 시대 조류와 김시습에 대한 외부의 평가를 토대로 작가의식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안창수는 금오신화를 각각의 개별작품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으로 파악하고 이들 작품 간의 연계성에 주목하여 작가의식을 파악하고 있다. 송주익은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식의 전개양상에 주목하여 몇 개의 작가의식을 분류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렇듯 작가의식 연구는 연구자에 따라 여러 관점에서 파악되고 있다. 그것은 김시습의 사상과 의식을 어느 한 측면으로 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선학들의 연구업적을 토대로 김시습의 작가의식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작가의 생애나 그 사상에만 집착하지 않고, 작품 자체의 분석을 통해 작가가 구현하려 했던 작품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를 탐색하는 데 목표를 둘 것이다. 작품의 의미는 결국 김시습의 의식세계를 드러내는 중요한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본고의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금오신화』에 수록된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정기>, <남염부주지>, <용궁부연록>등 다섯 편이 그의 생애를 한 단계로 구획할 수 있는 시기에 함께 저작되었으므로 이들 각각의 작품에 내포된 작가의 세계관이 동일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다섯 편의 작품을 통해 김시습이 구현하려 했던 점은 일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먼저 Ⅰ장에서는 연구 목적을 밝히고, 연구사들을 간략히 정리하여 선학들의 연

10) 서규태,「금오신화의 구조와 작가의식」,『어문논집』제 24-25집, 안암어문학회, 1985.
김갑진,「金鰲新話硏究」-작가의식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노영미,「金鰲新話에 나타난 작가의식 」,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안창수,「금오신화의 의미구조와 작가의식」, 한국민족어문학회, 1994.
송주익,「금오신화의 작가의식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구업적을 개관하고 본고의 연구방법을 제시했다. Ⅱ장에서는 작품창작의 배경이 되었을 김시습의 생애와 당시의 정치 및 사회적 배경, 그리고 문학적 배경에 대해 알아본 다음 Ⅲ장에서 김시습이 어떤 생각으로 금오신화를 쓰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귀신에 대한 생각, 문학과 사상에 관한 그의 의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언급해 보겠다. Ⅳ장에서는 그의 작가의식이 구체적으로 『금오신화』안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해 보겠다. 크게 세 부분 즉, 자아반영의식, 현실비판의식, 현실초월의식으로 나누어 설명할 것이다. Ⅴ장은 본고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본고의 기본 텍스트는『매월당집』과 심경호 번역『금오신화』로 삼았다.

Ⅱ. 작가의식의 형성 배경

1. 불우했던 환경

문학작품이란 어떤 방식으로든 작가의 체험을 반영한 것임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작품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작품을 창조해 낸 작가의 생애를 살펴보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11] 게다가 작가의 의식을 규명하는 작업은 작가의 삶을 떠나서는 가능하지 않다. 어떤 작품이나 작가의 철학과 사상, 생애 등이 그 작품에 직 · 간접으로 드러나 있게 마련이다. 곧 작품은 작자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제를 갖고 김시습의 생애를 통해 그가 어떤 사상을 지니게 되었으며 어떠한 작가의식을 형성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겠다.

김시습은 1435년(세종 17년)에 태어나 단종, 세조, 예종 시대를 거쳐 59세인 성종 24년(1493)에 생애를 마감하였다. 다시 말해 조선 초기인 15세기를 살다 간 인물이다. 15세기는 조선이 유학이라는 이념의 기치 하에서 새로운 사회적 기풍을 형성해 나가는 시대였다.

그의 본관은 강릉이며, 자는 悅卿이고, 호는 梅月堂 · 東峯 · 淸寒子 · 碧山淸隱 · 贅世翁이며, 불승처럼 법명도 가지고 있었는데, 雪岑이라는 이름이 그것이다. 그의 선대는 신라 김알지의 후예인 원성왕의 아우 주원의 후손이고, 증조부 金久柱는 安州牧使, 할아버지 謙侃은 五衛部將, 아버지 日省은 蔭補로 충순위를 지냈으며, 그의 어머니는 울진 仙槎張氏였다. 당대에 와서 쇠락해졌지만 선대에는 왕족과 대문장가 등으로 화려했던 가문이다.

---

11) 송창순, 「금오신화의 심층심리연구」, 『기순어문학』, 수원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91, p.179.

김시습은 1435년(세조 17년)에 서울의 성균관 북쪽에서 태어났다. 세상에 나온 지 여덟달 만에 능히 글을 알아, 이것을 보고 이웃에 사는 친척 어른인 집현전 학사 최치운이 『논어』의 <학이편, 學而時習之 不亦悅乎,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의 첫 구절을 따서 '시습'이란 이름을 지어 주었다. 신동이었던 시습은 세 살 때부터 시를 짓기 시작했고[12] 5세에는 이미 수찬 이계전의 문하에서 『中庸』·『大學』을 배웠다. 그의 영민함과 재주가 조정에까지 알려져 그 당시 세종에게 불리어 가기도 하였다. 김시습이 어린 시절을 회고하여 지은 시 <敍悶>[13]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八朔解他語	여덟 달만에 남의 말 알아들었고
三朞能綴文	세 돌에 글을 엮을 수 있었네
雨花吟得句	비와 꽃을 읊어서 詩句를 얻었고
聲淚手摩分	소리와 눈물을 손으로 가리켜 가려내었네
上相臨庭宇	높은 정승이 집안에 왕림하였고
諸宗貺典墳	여러 종파서 삼황오제의 글을 선사하였네
期余就仕日	내가 벼슬하게 되는 날에는
經術佐明君	경학으로 밝은 임금 모시려 했네

어려서부터 당대의 이름난 석학들[14]에게 수학하였으며, 유학으로 입신양명하겠다는 야망을 지녔다. 타고난 재능으로 인하여 밝은 미래가 보장된 출발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영민한 천재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못했다.

---

12) 3세에 보리를 맷돌에 가는 것을 보고 다음 시를 지었다 한다.
無雨雷聲何處動　비는 아니오는데 천둥소리 어디서 나는가
黃雲片片四方分　누른 구름 조각조각 사방으로 흩어지네.

13) 金時習, 『梅月堂集』, 卷之十四, 敍悶 6수 중 제 3수.

14) 어려서 외조에게서 천자문 등의 한적을 배워 2세에 한문에 통하고 3세에는 平仄, 對偶, 押韻 등의 방법을 가르쳐 作詩도 할 수 있었다. 5세 때에는 이계전의 문하에서 배웠고, 13세까지는 이웃에 사는 성균관 대사성인 김반의 문하에서 배웠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로는 어려서부터 신동으로 나라 안에 소문이 자자했던 까닭도 있었을 것이다.

그가 15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8살에는 자신을 맡아 길러주던 외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 곧 다시 서울로 돌아왔으나 아버지가 중병을 얻어 가사는 더욱 어렵게 되었고, 계모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어 그 역시 스무 살이 되던 해에 훈련원 도정 남효례의 딸을 맞아 장가를 들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결혼 생활은 지속되지 못했고 기대를 지니고 본 과거에서조차 낙방하였다. 후에 그의 가정적 불행은 그의 삶에 커다란 굴절을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암울한 환경 속에서 학업을 이루지 못할 것을 깨달은 그는 번거로운 장안을 등지고 삼각산 중흥사로 들어가 학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다가 21살 되던 해에 삼각산 중흥사에서 학문에 뜻을 두고 독서에 열중하다가 단종이 왕위를 빼앗겼다는 변보를 듣게 되었다. 그는 크게 낙심하여 읽던 책을 모두 불사르고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 김시습 스스로 異敎라 칭했던 불가에 몸을 담은 이유는 개인적 천성과 가정환경, 그리고 단종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패도가 왕도로 바뀔 때를 기다리기 위해 은둔한 것이라 보여진다. 그러므로 김시습이 삭발을 하고 방랑을 하게 된 동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세조의 왕위찬탈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여기에서 그의 문학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산천을 방황하면서 읊었던 시작 생활을 통해서 그 자신의 독창적인 문학세계가 만들어진 것이다. 방랑을 통해 그는 한 인간으로서 우뚝 서게 된다. 김시습의 방랑은 현실을 완전히 체념하고 초탈한 여유로운 유람일 수 없었고, 그릇된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분노, 운명에 대한 저주와 자학으로 이루어진 괴로운 방황이었던 것이다. 힘들고 고달픈 그 여로에서 그가 찾고자 했던 세계를 『금오신화』를 통해 표현해낸 것이다. 그러기에 『금오신화』의 의의는 한 인간의 고뇌와 좌절과 고통, 그리고 소망을 그리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는 雪岑이라는 법호를 쓰면서 관서와 관동지방을 차례로 유람하고, 다시 호남으로 내려가 방랑을 계속했다. 방랑을 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가던 무렵, 호남에서는 결실한 가을 평야를 바라보며 세조의 치적을 찬양하는 시를 쓰기도 했고, 이어

효령대군의 간청으로 상경하여 세조의 불경 간행사업을 도와 내불당에서 교정을 맡아보는 등 심경의 변화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31세 때에는 다시 서울을 떠나 경주로 내려가서는 자신의 생을 마칠 장소로 金鰲山에 金鰲山室을 짓고 정착하였으며 이 시기에 『금오신화』를 창작하였다. 금오산에는 37세까지 살았다. 이 기간은 타고난 재능으로 장래가 보장되었던 한 젊은이가 스스로 세상과 어울리지 못함을 자각하고 좌절과 번민 속에서 고뇌에 찬 세월을 보내야 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성종 2년 그의 나이 37세 때에는 서울로부터 청을 받고 다시 상경했다. 그 동안 세조와 예종의 시대가 지나고, 성종이 즉위하여 숭유문치를 표방하고 널리 인재를 구하였다. 그는 이제야 때가 왔다고 판단하고 상경했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상경해 보니 그가 적응하기엔 세상은 너무 많이 변해 있었다. 어릴 때의 친구들은 이미 높은 벼슬에 올라 자신과는 아주 다른 위치에 있었다. 그는 다시 좌절했다. 모든 것이 늦었다고 판단한 그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길거리에서 만난 높은 벼슬에 있는 친구를 희롱하기도 하고 관청에 들러 관리와 얼굴을 맞대고 싸우기도 했다. 그리고 47세 때에는 홀연히 머리를 기르고 고기를 먹기 시작하여 그의 조부에게 사죄하는 제문을 지어 전죄를 뉘우치고, 安氏 여자와 재혼하여 완전히 환속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죽고 국가적으로는 그 이듬해인 성종 13년에 조정에서 윤씨 폐비의 의논이 일어나매, 그는 세사에 뜻을 잃고 다시 방랑의 길을 떠난다. 세상에 이미 뜻을 잃어버린 그는 다시는 세상일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관동 유람 길에 올랐다가 성종 23년 3월 충청도 홍산 무량사에서 5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평생을 불우하게 살다간 김시습은 세상을 떠난 지 18년(1511년, 중종 6년)만에 왕명으로 유집을 찾아 모아서 개간하게 되고, 세상을 떠난 지 89년 후(1582년, 선조 15년)에 선조께서 영을 내려 <金時習傳>[15]을 짓게 했다. 세상을 떠난 지 289

15) 李珥가 지은 傳. 金時習에 대하여 지은 전이다. 작자의 문집인 『栗谷集』 권14 ~ 16 <잡저>에 실려 있는 그의 유일한 전이다.

년(1782년, 정조 6년)만에 이조판서의 증직을 내리고 다시 사후 291년(1784년, 정조 8년)이 되는 해에 淸簡이란 시호를 받았다. 이러한 김시습의 일생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김시습은 절의를 굽힐 줄 모르는 불우한 지식인이자 고뇌하는 사상가였으며, 한편으로는 자신의 고뇌를 작품 활동을 통해 형상화시킨 위대한 문학가로서의 구실을 다하였던 인물이다.

2. 패도가 횡행하던 시대

『금오신화』가 창작되었던 麗末 · 鮮初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元 · 明 交替期에 해당하는 동아시아 역사의 일대 전환기이기도 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정세는 정치적으로는 신흥 봉건국가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신 · 구의 대립과 혼란이 심하였고, 사상적으로는 崇儒排佛이 강조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 가운데 문치주의, 왕도정치를 표방하던 정도전 일파와 이성계 일파가 힘을 합쳐 1392년 혼란한 고려왕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다. 조선왕조를 창업한 태조 이성계와 그를 추대한 정도전 등의 개혁파들은 麗末 폐해가 심했던 불교에 대해서는 강력히 비판하고, 새로운 왕조 창업의 필연성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정치 · 사회 · 문화면으로 숭유배불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고려조의 절대왕권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하던 불교의 호국론 대신에 성리학의 민본적 정치를 실행하고자 하였다.

왕권과 신권의 조화 속에서 조선 초에 가장 번영했던 때는 바로 世宗代이다. 세종은 太宗의 뒤를 이어 在位 32년간(1418-1450년) 중앙집권체제의 확립, 국가 재정의 충실, 영토의 확장, 민생의 안정, 문화의 성숙을 가져옴으로써 개국 이래 가장 안정된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世宗代의 정치, 경제, 민생의 안정과 번영은 민본정치를 토대로 한 것이었으며 당시에 출생한 김시습은 유교의 근본정신 아래 민본적

왕도정치의 실현을 꿈꾸며 성장하고 수학하게 된다.

그러나 세종이 죽고, 세종의 장남 문종이 등극하여 재위 2년 3개월 만에 승하하니, 세자로 책봉되었던 단종이 12세의 나이로 즉위하여 전대와 같이 왕권의 조화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여러 大君들은 앞을 다투어 권력 확장에 전념하게 되었고, 이 가운데서도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은 여러 신하와 모의하여 선대의 유신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여 왕위를 찬탈하였으니 이것이 곧 癸酉靖難이다. 계유정난은 왕권의 신권에 대한 승리라는 차원과 조선이 건국 시 내걸었던 왕도정치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이중적 의미로서 그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이 사건은 당시의 문인들에게도 커다란 충격을 주어 편을 갈라 반목대립을 하게 되었으며, 민본적인 왕도정치의 실현을 꿈꾸며 학업에 전념하던 유학자들은 不事二君을 내세워 초야에 묻히거나 入山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 사건이 김시습에게는 그가 평생을 불우한 인물로 지내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그 시대의 유학자에게는 계유정난을 왕도로 받아들이든지 패도로 받아들이든지 하는 하나의 선택만이 주어졌던 것이다. 김시습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다음과 같은 시가 잘 암시해 주고 있다.

大道旣不行　대도는 이미 행하여지지 아니하니
誰與抒中情　뉘와 더불어 속마음을 펴볼 건가?[16]

여기서 김시습은 태조 이래 왕도정치가 시작되어 세종에 이르러서는 거의 완전히 大道가 회복되었으나, 세조의 등극으로 말미암아 대도의 도가 아닌 패도가 횡행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세조의 무력적인 왕위 찬탈은 왕도 정치의 정통 유학을 배웠던 김시습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그가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했던 커다란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불의한 현실에 대한 저항적 생활과 절의감을 나타내기 위한

16) 金時習,『梅月堂集』, 詩集 卷之八.

수단으로 김시습은 방랑생활 중 30대에 은거한 금오산에서 『금오신화』를 창작하게 된다. 문학작품은 시대적 반영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그 당시의 정치와 사회현실에 대한 반항의식을 작품에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3. 방외인의 처지

작품이 창작될 당시의 문학 양상을 살피는 것은 문학작품의 바른 해석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이것은 한 작품의 작가가 그 당시 문학의 조류를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이 조류 속에서 나름대로의 문학관과 문학성을 어떻게 반영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한문학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융성했었다. 이 시대에는 유학이 크게 발달하여 고려시대에서와 같이 經 · 史를 다루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유학의 근본 이치를 탐구하는 성리학이 크게 번성하였다. 그리고 조선초기에는 한글이 창제됨으로써 진정한 민족문학이 건설되기도 하였다. 특히 김시습이 처했던 세종과 세조대에는 유례없는 각종 서적들이 편찬되고 번역되었다. 또한 당시에 중국문학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김시습이 창작한 『금오신화』가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은 것은 이미 학계의 연구결과가 두 작품의 유사성을 대비하여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외의 문화적 기운 속에서 당시의 학자들은 조선 건국의 공훈으로 권력을 장악한 신진사대부와 거기에서 소외된 지식층으로 나누어 있었고, 세조의 癸酉靖難이라는 정치적 참화로 말미암아 그나마 사회지배층은 또 다시 분열되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져 있었다.[17] 이에 따라 당시의 학자와 지식인들은 신왕조의 관료체제를 확립시키고 신분제도상의 사회적 안정과 교화에 중점을 두어 실용적인 면을 중시한 사장파와, 이와는 반대로 신왕조 자체를 거부하여 은둔자적하

17) 김진두, 「東峯 김시습의 한시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p.12.

는 풍토에서 참된 왕도정치를 실현하고자 학문과 제자 양성에 주력하는 도학파로 나뉘어 서로 다른 두 산맥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학풍과 연계되어 선초에는 사장학에 치우친 관인문학과 도학을 중시한 처사문학이 공존하였다.[18]

관인문학은 조선 초기 개국공신 정도전을 기점으로 하여 권근, 하륜으로 이어지고, 서거정에 이르러 정점을 도달했고, 처사문학은 고려 말 신하들 가운데 당시 벼슬을 버리고 표연히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과의 친화를 이룬 원천석, 남효온, 김종직으로 이어진다. 종래의 유불혼합문학이 시대 조류에 의하여 유교단일문학으로 변천해 감에 따라 사장파 문학가들은 그들의 시와 문장이 대체로 시류에 영합하는 관인문학으로 만들어 냈고, 도학파 문장가들은 시류를 거부하고 산림과 초야에 묻혀 살면서 순수문학과 자연문학을 추구하는 처사문학을 완성시키게 되었다. 결국 관인문학은 현실에 참여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는 관인들의 문학이며, 처사문학은 현실에 참여하지 못하고 일세의 정취로 자연과 융화된 삶을 구가하는 처사의 문학이다. 그러나 관인문학과 처사문학은 근본적으로 같은 사대부 층의 문학으로, 사대부가 진하면 관료요, 퇴하면 처사가 되는 까닭에 처지와 환경에 따라 서로 내왕할 수 있는 가변적 관계에 있었다.

김시습은 이러한 시대조류를 뛰어넘기라도 하듯 일생의 절반 이상을 산사에서 보내면서 『금오신화』를 창작함으로써, 관인과 처사의 경지를 뛰어넘어 조선 중기의 조류에 대해 저항적인 생활이었던 方外의 생활을 하게 되고, 여기서 '方外人文學'이라는 새로운 문학의 장을 열게 된 것이다.[19] 方外人이란, 체제 밖의 인물을 이르는 말이다. 지배체제 안에서 주어진 위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을 보이며, 이념적으로도 이단을 택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쓰던 말이다. 즉, 세상 바깥의 인물들을 뜻하는 것으로, 관인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것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처사로서 권위와 규범을 지키는 것도 바라지 않는 유형의 인간형이다. 김시습은 이러한 방외인의 선구자였다.

---

18) 설중환, 「금오신화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p.27.
19) 설중환, 앞의 논문, p.27.

내적으로는 당시의 활발한 편찬사업과 국문자의 창제, 그리고 외적으로는 중국문학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전등신화』로부터 영향을 받아 김시습의 작가적 감정을 충동시켰다. 이로 인해 이 같은 그의 '방외인문학'이라는 새로운 문학조류에서 인간정신을 확대 · 구현할 수 있는 소설양식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Ⅲ. 작가의식의 실현 내용

1. 원통함의 고발

『금오신화』의 작품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鬼神觀'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이는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奇異로움을 해명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고, 작가의 창작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작업이기도 하다.

귀신사상은 고대인들의 애니미즘에서 출발하여 오랜 세월을 두고 한민족의 정신생활을 지배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조선초기에는 '不語怪力亂神'의 유교사상에 밀려 老佛과 함께 배척을 받은 한편, 도교와 속불에 합세하여 일반대중뿐만 아니라 궁중 儒者들의 생활면까지 숨어들어 그 해가 적지 않았으므로 식자들의 개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20]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시습에게 있어 귀신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의 작품『금오신화』에는 귀신들이 자주 등장한다.『금오신화』에 등장하는 귀신들은 사건의 부차적 요소가 아니라 사건을 이끌어 가는 적극성을 보이면서 능동적인 입장에 서 있다. 또한 남 주인공들의 삶에 어떤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김시습의 귀신관을 살펴보는 것은 그의 의식을 살필 수 있는 좋은 단초이며『금오신화』연구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김시습은 그의 著 <귀신설>에서 성리학에 바탕을 두고 귀신을 정의하고 있다.

> 천지 사이에 오직 하나의 氣가 풀무질 할 뿐이다. 그 理는 굽히기도 하고 펴기도 하며, 찼다가는 비게 된다. 굽히고 폄은 妙요, 차고 빔은 道이다. 펴면 가득 차고 굽히면 텅비며, 가득 차면 나오고 텅 비면 도로 들어간다. 나오는 것을 神이라 하고, 돌아가는 것을 鬼라 한다. 그 참된 理는 하나이되, 그것이 나뉘면 각기 일만가지로 다르게 된다.[21]

---

20) 김두경,「김시습과 작품 금오신화에 나타난 사상 연구」, 1976.

귀신의 개념을 일원론적 주기론에 입각하여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귀신을 陰陽二氣의 良能이라고 하면서, 음양의 작용으로서 陰氣의 작용이 鬼이며, 陽氣의 작용이 神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생성작용이 神이고, 소멸작용이 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김시습의 귀신관이 '귀'와 '신'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오신화』에 나타나는 귀신을 '귀'와 '신'으로 나눈다면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의 여인은 '귀'이며, <남염부주지>의 염왕과 <취유부벽정기>의 기씨녀, <용궁부연록>의 용왕 등은 모두 '신'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귀와 신은 다시 邪氣와 正氣로 연결될 수 있다. 먼저 正氣에 대한 김시습의 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고 참된 기인데, 바르고 참된 기가 천지 사이에 움직여 아래로는 백성을 돕고, 위로는 하늘에 순응하는 까닭에, 사당을 세우고 그에게 비는 것은 위엄과 영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고 대개 그 공덕을 갚기 위해서이다.[22]

이렇게 볼 때, 정기는 사람을 돕고 세상의 조화로움에 이바지하는 바르고 참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즉, 염왕이나 용왕, 천상의 선녀는 모두 그가 염원하던 이상세계의 상징적 존재라고 볼 수 있으며, 그들은 인격으로 표현된 人神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가 귀불과 신불을 인정하는 태도는 관념적 존재로서의 규정이요, 종교적 상징을 나타낸 것이다.

금오신화에 등장하는 귀신들 가운데 기씨녀, 염왕, 용왕 등은 신적 존재이면서 正氣에 해당하며, 이것은 작가가 염원하는 이상세계를 상징한다. 일례로서 <용궁부연록>에 등장하는 용왕은 올바른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은 또한 있어

---

21) 金時習, <鬼神說>, 『梅月堂集』, p.216.
22) 金時習, <鬼神>, 『梅月堂集』, p.103.

야 할 세계, 곧 질서 세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김시습은 邪氣의 출현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귀에 해당하는 人的 존재인 것이다. 邪氣의 출현은 지극히 잘 다스려지지 못한 세상과 지극하지 못한 사람의 분수로 말미암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한 세상과 사람의 경우에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죽더라도 완전히 저승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승에 남아서 그의 미진한 정을 채우며, 어느 기간이 되면 자연히 사라져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살아 있는 자들의 마음이 미혹한 경우에는 그런 邪氣와 만날 여지가 많다고 하였다. 일례로서 <이생규장전>의 최랑, <만복사저포기>의 여인, <취유부벽정기>의 기씨녀는 邪氣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승에 존재함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미혹함에 감응될 여지가 많은 남주인공 유생과 만남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김시습의 귀신관은 결국 正氣가 질서세계, 이상세계를 상징한다면, 邪氣의 출현은 어지러운 세계, 불합리하며 잘 다스려지지 못하는 세계를 상징한다. 김시습이 『금오신화』속에 귀와 신을 함께 등장시킨 것은 그가 가진 의식의 갈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邪氣가 상징하는 불합리한 현세에 대한 집념을 나타내면서, 正氣의 출현이 상징하는 이상세계의 설정을 통하여 삶의 새로운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김시습의 귀신관을 요약하면, 氣의 변화를 鬼神이라 하고 음양의 良能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음기의 작용을 鬼라 하고 양기의 작용을 神이라는 것이다. 귀신은 正氣와 邪氣로 나누었는데, 正氣는 사람을 돕고 세상의 조화로움에 이바지하는 참된 존재인 正鬼이고, 邪氣는 우리 고유의 원귀와 본질적으로 같은 邪鬼이다. 금오신화에 나오는 귀신은 대부분 邪鬼라고 할 수 있다. 즉 원통한 사정을 하소연하고 이루지 못한 소원을 풀려고 하다가 얼마 후에 사라진다. 귀신이 나타나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되, 원통하게 죽어 원귀가 되면 얼마 동안은 기가 아직은 흩어지지 않아 그럴 수 있다는 데 근거를 두고 사건을 꾸밈으로써 금오신화는 더욱 실감을 지니게 되었다.

2. 이상 세계 표현

김시습은 시를 통해서 사물과 사상과 감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표현한 시인이었다. 따라서 그의 문학관은 그의 시 작품을 통해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당시의 제도적인 문학에서 탈피하고, 허구적인 방법을 통해서 흥미 있는 문학, 다양성의 문학을 구가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음 시작품은 이러한 그의 생각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文章於道未爲尊	문장은 도보다 높은 게 못 된다지만
三百餘篇學孔門	시 삼백여 편을 공자의 문하에서 배웠네.
商也起予能杜口	商이 날 일으켰다는 말씀 능히 입을 다물게 해도
大塊假我可無言	천지가 내게 문장을 빌려주었으니 말이 없을쏘냐.
風煙藹藹揮肝膽	바람과 안개 자욱해서 간담을 휘저으니
珠玉琅琅入吐呑	주옥 소리 낭랑하게 머금었다 뱉었네.
千首輕侯應有分	수없는 시 지으면서 후마저 업신여김이 분에 맞으니
狂歌醉墨自瀾飜	미친 노래 취한 먹이 물결처절로 뛰네.[23]

여기서 김시습은 문학의 속성을 사람의 천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늘에서 빌려받은 것이니 도나 예에 상관없이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옥 소리처럼 낭랑하게 천수, 만수 지어내면서 제후도 업신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라고 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도덕주의적 문학관에 얽매이기를 거부했던 김시습의 문학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김시습은 형식과 겉모양에만 치우쳤던 당시의 과거 시험 답안지들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다. 오늘날 과장의 글은 언뜻 보기에는 훌륭한듯하지만 다만 '이', '지', '이', '호' 뿐으로 얕은 뜻을 꾸몄으니 그 말이 비록 입술에 흐른다

23) 金時習, 『梅月堂集』, 詩集, 卷之四.

하더라도 그 뜻은 새벽이슬과 봄날 서리의 실상 없는 것과 같다. 당시의 과거 답안지가 기교에만 치우쳐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무리 형식과 기교가 뛰어나더라도 실속 없는 내용이어서 마치 봄날 서리의 실상 없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김시습은 문학지상주의적 입장을 표방하고 있었다.

다음은 소설에 관한 김시습의 인식이다. 먼저 <題金鰲新話>는 김시습이 『금오신화』를 창작한 후, 그 소감을 밝힌 시인데 7언 절구 2수로 되어 있다.

矮室靑氈暖有餘	작은 집에 청전 까니 따뜻함이 넉넉한데
滿窓梅影月明初	창에 가득 매화 그림자 달이 밝기 시작하네.
挑燈永夜焚香坐	등잔 돋아 밤새도록 분향하고 앉아서
閑著人間不見書	인간들이 못 봤던 글 한가하게 지어내네.
玉堂揮翰已無心	옥당에서 글짓던 일 이미 마음 없어
端坐松窓夜正深	깊은 밤에 송창에 단좌하고
香揷銅鑪烏几淨	향로에 향 꽂으니 오궤[24]가 깨끗하니
風流奇話細搜尋	풍류스런 기이한 말 자세히 찾아보오.[25]

이 시에서 주목되는 내용은 '人間不見書'와 '風流奇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구절은 김시습의 소설관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말이다. '人間不見書'에서 '人間'이란 그냥 '사람'이 아니라 '人間 世界'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人間 世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이 즉 '人間不見書'인 것이다. '人間不見書'의 구체적인 작품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 '風流奇話'이다. '風流奇話'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을 즐기는 기이한 이야기'이다. 비현실적인 이야기 즉, 기이한

24) 오궤 : 검은 양가죽으로 꾸민 안석. 옛사람들이 몸을 기대는 데 사용했다.
25) 金時習, 『梅月堂集』, 詩集, 卷之六.

이야기이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간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풍류기화'인 것이다. 그러므로 '人間不見書'가 다소 포괄적인 의미라면, '風流奇話'는 보다 구체적인 세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김시습이 삶의 과정에서 겪은 수많은 좌절은 그만큼 현실에 대한 불신과 함께 또 다른 삶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결국 김시습이 방랑 후에 금오산에 정착한 것은 현세에 대한 강한 집념과 함께 또 다른 이상세계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人間不見書'의 일차적인 의미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즉 '人間不見書'란 현실에 대한 강한 집념과 그것이 좌절된 뒤에 겪게 되는 또 다른 이상세계로의 추구가 다 함께 반영된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과 이상의 양면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風流奇話'는 그러한 김시습의 인식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작품세계를 가리키는 말이다. 『금오신화』에는 귀녀, 기씨녀, 염왕, 용왕 등의 異界의 존재들이 등장하며, <남염부주지>를 제외한 네 작품들에서는 한결같이 시와 놀이가 등장하고 있다. 이는 '風流奇話'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김시습은 이러한 '風流奇話'의 외형적 장치를 통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이상세계를 우의적인 방법으로 드러내려 하였다.

한편, 『전등신화』를 읽고 나서 그 느낌을 적은 시, <題剪燈新話後>에서도 김시습의 문학관이 나타나 있다. 특별히 눈여겨볼 대목은 '語關世敎怪不妨 事涉感人誕可喜, 말이 세상 교화에 관계되면 괴이해도 무방하고, 일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허탄해도 기쁘니라'이다. 이 두 구절을 거꾸로 바꾸어 보면 그 뜻이 더욱더 명확해진다. 즉 '괴이한 이야기로써 세상교화를 이루고'와 '허탄한 일로써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것이다. 결국 글에 교훈이 있으면 조금은 이상한 이야기여도 상관이 없고,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으면 글이 허탄해도 좋다는 것은 김시습이 깨달은 글에 대한 정의이고, 김시습의 문학관이라 할 수 있다.

3. 유불도의 융합

생애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김시습 사상의 중심축은 유교와 불교 그리고 도교라는 전통 동양사상의 흐름과 맞물려 있다.

우선, 김시습에게 있어서 불교는 종교적인 신념이라기보다는 세상을 피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다. 이는 다음 글에서 더욱 극명히 드러난다.

> 또한 저는 본디 佛敎나 老子 등의 異端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과 벗했던 것은 중이란 본래 物外人이요 山水 또한 물외인이기에 이 몸이 물외에서 놀고 싶어 중과 벗 하며 산수에 노닐었던 것입니다.[26]

그는 단호하게 불교를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다. 불교가 이단이라는 것은 물론 유교가 正道라고 하는 전제에 입각한 것이다. 이단인 불교를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중과 어울려 지낸 것은 다만 물외에서 놀고자 한 것, 즉 혼탁한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따름이라는 것이다. 李珥의 <김시습전>에서 김시습을 '心儒跡佛'이라고 지적한 것은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 하겠다. 특히 김시습은 불교 가운데서도 신앙적인 면, 그 가운데서도 부처의 영험을 믿고 복이나 비는 이른바 祈福佛敎를 철저하게 배척했다. 인간이 이단으로서의 불교, 특히 기복 불교에 어떻게 매혹되고 어떠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가를,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통달한 사람이 거기에 빠진 것은 혹 불행함에 있어 그렇게 된 것이다.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마치 엎어진 자가 또 채이고 쓰러진 자가 다시 짓밟혀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七顚八倒하면 거기에 투신하기를 원하여 거기에 영험을 빌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이를 위해 큰소리 작은 말로 꾀고 달래니 어찌 그 속으로 차차 말려 들어가지 않겠는가? 고로 先儒가 이르기를 마땅히 淫聲美色과 같이 그것을 멀리해야 한다고 했다.[27]

---

26) 金時習, <상 유자한서>, 『梅月堂集』, 下卷, p.293.

기복불교는 마지막 기대를 걸고 투신하는, 생활의 패배자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邪敎라는 것이다. 이런 종교는 김시습처럼 불행 속에서 좌절에 좌절을 거듭한 자가 의탁하기 알맞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은 그와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냉철하게 분석하고 경계했다. 유교의 합리적 사고로 인하여 이런 결론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김시습이 불교에 있어서 인정했던 면은 불교의 도덕론적 측면과 禪이다. 그는 종종 유교를 기준으로 삼고 그와 상통하는 불교의 도덕적 측면을 지적하면서 불교에도 긍정적인 면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하였다.

또한 김시습이 그런대로 가까이 했던 불교의 종파는 禪宗이었다. 김시습은 선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편안하고 한가로운 방법인 줄 알지마는 실은 '思修精廬'라고 했다. '사수정려'는 힘들여 사색하면서 마음을 닦는다는 뜻인데, 그렇다고 김시습이 불심을 찾기 위해 선을 행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깊은 사색으로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면서 자기를 수양하는 방법으로 택했던 것 같다. 요컨대 김시습은 불교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지만,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사상 혹은 학문으로서 접근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사실 자신의 사상적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유학의 연장선상에 위치한 것이기도 했다.

다음으로 유교사상을 살펴보면, 과거의 많은 유학자들도 대체로 그를 가리켜 유학에 정통한 학자로 보고 있다. 김시습의 전기를 쓴 이율곡은 그를 가리켜 백세의 스승이며 동방의 공자라 칭하며, 절의와 윤리를 지키고 이룸에 있어 그 뜻이 높고 밝음이 해와 달에 비길만하다 하였다. 송시열도 그의 『宋子大全』에서 매월당의 인품이 너무 높아 미친 중의 행세를 하였음도 다 옳지 못한 세상을 피하기 위함이라 하였고, 이와 같은 견해로 이산해도 『매월당집』 서문에서 김시습의 재주를 아껴 그 뜻이 펴지지 않음을 하늘에 원망하기까지 하였다.

김시습의 사상은 유학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주의

---

27) 金時習, <異端辯>, 『梅月堂集』, 下卷, p.234.

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른 유학자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신비주의나 영혼 불멸설 같은 것은 전혀 믿지 않았으며, 미신적·비현실적 사고는 철저히 배격했던 것이다. 그러나 소설의 사건을 꾸미는 데 있어서 괴이하거나 허탄한 요소를 주저하지 않고 삽입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유학자들이 지닌 소설관과는 얼마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유학자들은 흔히 소설이 史實 혹은 事實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김시습은 "말이 세상 교화에 관계되면 괴이해도 무방하고, 일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허탄해도 기쁘니라"[28]는 스스로의 소설관을 자신의 소설 창작에도 적용시켜, 거침없이 혼령을 작품에 등장시키고 있다. 더욱이 그는 『금오신화』를 지은 다음, 이 작품을 대상으로 시를 지었는데 여기서 그는 『금오신화』가 "세상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책"[29]이라며 기이함을 뽐냈다. 김시습은 자신의 소설에 혼령을 등장시킴으로써 유교의 합리적이고 현실주의적 사상을 스스로 파기한 것으로 오인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실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비록 그는 작품에서 스스로 정립한 귀신관에서 인정될 수 있는 원귀를 등장시켰지만, 원귀가 된 내력을 소상하게 알려줌으로써 작품의 심각한 주제를 마련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당연히 유교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이 자리잡고 있다.

김시습은 또한 <愛民義>, <生財說>, <人君義>따위의 논설을 통하여 자신의 정치·사회적 견해를 뚜렷이 제시하였는데 <애민의>는 민본사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김시습은 임금과 필부 사이에 털끝만한 간격밖에 없다고 했다. 민심이 떠나면 하루아침에도 필부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임금에게 조차도 무시무시한 경고가 된다. 세조의 왕위 찬탈에 심각하게 좌절한 그로서는 이는 혁명을 기도하는 발언으로 전달될 수도 있다.

---

28) 語關世敎怪不妨 事涉感人誕可喜. <題剪燈新話後>
29) 人間不見書. <題金鰲神話>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오로지 애민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애민의 방법은 인정에 지나지 않는다. 인정이란 무엇인가 온정을 베푸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는 것도 아니며 다만 농상을 권장하여 본업에 힘쓰도록 해주는 것이다. 권장하는 방법도 번거롭고 명을 내려 아침저녁으로 장려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적게 부과하고 부역을 가볍게 하여 농사 지을 시기를 빼앗지 않으면 된다.[30]

그는 또한 애민의 방법을 '仁政'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인정도 별것이 아니고 조세와 부역을 경감시켜 백성들로 하여금 제때에 농사를 짓도록 놓아두는 것일 따름이라고 했다. 김시습이 인정을 간단히 정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간단한 일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15세기 후반의 현실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나무를 조각해 농부가 밭갈이하는 모습을 만들어 책상 옆에 진열해 놓고 온종일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울면서 태워버리더라는 <김시습전>의 내용을 통해 볼 때, 그는 관념 이상으로 실천을 중시하고 있으며, 생산자로서 농민의 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무기력한 관념의 추수자로서 당대의 유학자들에 대한 비판적 함의가 내포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처럼 철저한 현실 인식이 『금오신화』에 나타나지 않을 리 없다. 특히 <남염부주지>에서는 위의 애민론이 염마왕의 입을 빌어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임금에게 백성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섬뜩한 느낌을 줄 정도로 표현하고 있다. 임금은 자칫하면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미약한 존재인 것이다.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비극은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김시습의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면적으로는 매우 강화된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그의 유교사상이 지니고 있는 현실적 성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도선사상을 살펴보자. 도선사상은 과거 우리 선인들이 동경하던 이상향

30) 金時習, <愛民義>, 『梅月堂集』, 下卷, p.244.

이요, 현실극복의 방편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오랜 문학양식인 설화문학으로부터 고전소설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인들은 현실 극복의 최후 수단으로 이를 애용했으며 또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거니와 모두의 의식 속에 제법 깊은 영향을 미쳐왔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좋은 한 본보기가 김시습의 경우로 볼 수 있다. 김시습은 도교의 전적인 노자의 <道德經>과 장자의 <南華經>, <黃庭經>과 같은 道書를 정독하였고, 신선술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여 병약한 그로서는 도교의 장생술을 터득하여 치병쾌신을 바란 흔적이 얼마든지 있다. 또한, 그는 생애 일부를 산수를 찾아다니며 유유자적하게 합자연의 생활로서 보냈으며, 약초재배와 채약을 한 적이 있다. 이를 통해 그의 사상에서 도교적인 신선요소는 필연적인 것이다.

김시습이 도가에 관심을 가진 기록은 <海東傳道錄>에 도사 초현을 처음으로 만난 기록이 보이며 또 『매월당집』에 이노옹에게서 <도덕경>을 얻어 감동 깊게 읽었음이 그의 시에서 엿보인다. 이율곡의 <김시습전>에서도 그가 도선에 깊은 지식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김시습은 그의 『매월당집』 권 17 <잡저편>에서 도선을 비판하고 있는바 비교적 자세한 설명에 이른 것으로 볼 때, 그 자신은 상당히 깊은 경지에까지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홍만종은 그의 <旬五志>에서 역대 유 · 불 · 도 세 가지 인물을 분류하는데 김시습을 도교에 분류하였음은 퍽이나 의미가 깊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김시습이 도선사상에 몰입했음은 절실한 필연적인 내적 요구에서 자기 구제의 방책으로 선택한 길이었음을 알 수 있다.[31]

한편 그의 작품 『금오신화』에 반영된 도선사상을 보면 우선 전 다섯 편 중 <이생규장전>을 뺀 네 편이 도선적인 결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곧 <만복사저포기>의 주인공 양생은 지리산에 입산하여 종적을 감추었으며, <취유부벽정기>의 주인공 홍생은 천상계 선관으로 갔고, <남염부주지>의 주인공 박생은 염라국의 염

31) 최삼룡, 『한국초기소설의 도선사상』, 형설출판사, 1982, p.68.

라왕으로, <용궁부연록>의 주인공 한생은 명산에 들어가 종적을 감춘다. 곧 이들은 한결같이 세속에서 초탈하여 도선적인 경지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낸 것이다.

Ⅳ. 『금오신화』에 투영된 자아반영의식

1. 생애 반영

작품창조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의 하나는 작가의 체험이다. ‘그 나무에 그 열매’라는 말이 있듯이 문학창작의 저변에는 작가자신의 개인적인 체험 혹은 타인들과의 이해관계가 내재한다. 『금오신화』와 김시습의 관계도 예외일 수는 없다. 금오신화 다섯 편에는 작가 김시습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그의 생애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작품 안에 묘사되어 나타난다.

<만복사저포기>의 남자 주인공인 양생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아직 장가들지 못하고 절에서 혼자 사는 인물이다. 그의 방 앞에 있는 꽃이 만발한 배나무 한 그루의 묘사와 달밤에 그 아래를 거닐며 시를 읊는 서두 부분은 소외되고 있는 양생의 정황을 더욱 부각시켜 준다. 이러한 양생의 삶은 흡사 김시습 자신의 생애와 맞물려 있다. 김시습의 문집에 아래와 같은 구절을 엿볼 수 있다.

> 어머니를 일찍 잃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길러주시는 은혜를 입지 못하였고, 묘를 지키고 제사를 받들어 법도에 따라서 점괴를 하다가 이러한 고질병을 얻게 되었다.[32]

위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시습 자신도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외롭게 살게 된다. 어머니를 일찍 여읜 한이 김시습에게는 슬픔으로 남아있다.

또한, 『금오신화』의 작품 속에 주인공들은 모두가 장가들지 아니한 노총각으로 되어있다. 이 점도 작가 김시습의 생애를 대비해 볼 때 매우 유사하다. 윤춘년의 <매월당선생전>의 기록에 의하면 김시습이 삼각산 중흥사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도

32) 金時習, 『梅月堂集』, 卷之六.

원정 남효례의 딸과 결혼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세상에는 김시습이 소시에 장가든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을뿐더러, 여러 문헌에도 김시습이 사십 칠세 되던 해에 과부인 안씨에게 장가들 때까지 처가 있었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으므로 김시습의 이십 전의 결혼생활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따라서 소설 속의 주인공 남자들은 작가 자신의 독신의 모습을 다루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작품의 주요 배경이 절이 되는 것도 김시습의 생애가 거의 절에서의 생활이었음을 볼 때 그의 삶이 작품 속에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주인공 양생의 처지는 김시습이 어머니를 일찍 여읜 한과 아내를 얻지 못한 고독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만복사의 동쪽 방에 기거하던 양생은 방밖에 서 있던 배나무 밑을 거닐면서 시흥이 돋아 시를 짓게 된다.

一樹梨花伴寂廖	배꽃 나무 한 그루 외롭기도 하구나
可憐孤負月明宵	달 밝은 밤 외롭기가 가련하기도 하구나
靑年獨臥孤窓畔	외로운 창가에 청년이 홀로 누워있는 곳에
何處玉人吹鳳簫	어느 처녀가 퉁소를 불어줄 것인가
翡翠孤飛不作雙	비취는 짝을 이루지 못하고 저 홀로 외롭게 날아가고
鴛鴦失侶浴晴江	짝 잃은 원앙새는 맑은 강가에서 노니는데
誰家有約敲碁子	기보를 풀어보며 인연을 그리다가
夜卜燈花愁倚窓	한 밤중에 등불로 점을 치며 창에 기대어 수심에 젖어 있네[33]

이렇게 시 읊조리기를 마치자 양생의 시 창작력에 하늘이 감응을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검토해 볼 때 양생은 단순한 노총각이 아니라, 탁월한 능력을 갖춘 인물이지만 세상이 그를 버린 관계로 소외되어 있을 따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작가 김시습의 자화상적 모습이다. 어려서부터 천재성을 보이며 장래가 촉망되는 나

33) 『金鰲新話』, 해석본: p.25

라의 인재로 커갔지만 모순된 시대 앞에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펴보지 못한 김시습의 삶이 곧 양생의 삶인 것이다. 양생 역시, 하늘이 감응할 만한 시 창작력을 지녔지만 절에서 소일거리나 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모습은 그 당시 벼슬길에 나가지 못한 유학자들의 내면을 나타낸다.

<이생규장전>은 개성에 사는 유학자 선비인 이생과 사대부집 처녀 최랑과의 사이에 맺어진 애정물이다. 주인공 이생과 최랑은 전형적인 한국의 선비상과 여인상을 그리고 있다. 즉, 학식과 교양이 있으며, 淑德才學을 겸비한 인물상으로서, 이는 당시 양반 사회의 전형적인 인물상이며, 그들의 언행은 조금도 어색함이 없는 완전한 한국인의 그것이다. 비록 성명에 있어 이름은 밝히지 않았으나, 이생의 경우 송도라는 지명을 배경으로 한국 성씨 중 大姓이며 명문인 李氏를 택하고 國學 학생이라는 여건을 줌으로써 한국의 전통적 명문 자제상을 부각시키고 있다. 상대 인물인 崔娘子 역시 송도 善竹里를 배경으로 명문대가인 崔氏 가문의 규수라는 여건을 줌으로써 한국의 전통적이며 전형적인 명가의 여인상으로 부각시켰다.[34]

이와 같은 인물의 설정은 김시습의 유년시절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생의 모습은, 비록 한미한 무반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재주가 뛰어나 어렸을 적부터 촉망받던 김시습의 모습이다. 최랑 역시 명문대가의 규수로 설정함으로써 김시습이 바라던 이상적 여인상으로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인공은 명문 사대부 집안의 자녀로서 유교사상이 몸에 베어 있는 인물들이다. 따라서 전반부의 현세적 삶에서는 유교사상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또한, 남자 주인공 이생의 성격은 최랑을 만나게 되는 과정, 결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저 무기력하게 최랑을 사랑하는 수동적, 소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

獨倚紗窓刺繡遲　紗窓에 홀로 기대앉아 수놓기도 귀찮구나.
百花叢裏囀黃鸝　온갖 꽃 떨기 속에 꾀꼬리 소리 다정도 해라.

34) 홍대봉, 앞의 논문, p.20.

無端暗結東風怨　마음속으로 부질없이 봄바람을 원망하며
不語停針有所思　말없이 바늘 멈추고는 생각에 잠겼어라.

路上誰家白面郎　저기 가는 저 총각은 어느 집 도련님일까.
靑衿大帶映垂楊　푸른 옷깃 넓은 띠가 늘어진 버들 사이로 비쳐 오네.
何方可化堂中燕　이 몸이 죽어 가서 대청 위의 제비 되면
低掠珠簾斜度墻　주렴 위를 가볍게 스쳐 담장 위를 날아 넘으리.[35]

이처럼 최랑은 처음에 사랑을 그리는 시를 읊조려 이생에게 호감을 보인다. 이에 이생은 아래와 같은 시를 읊조린다.

巫山六六霧重回　巫山 열두 봉에 첩첩이 싸인 안개,
半露尖峰紫翠堆　반쯤 들난 봉우리는 붉고도 푸르러라.
惱却襄王孤枕夢　이 몸의 외론 꿈 수고롭게 하지 마오,
肯爲雲雨下陽臺　구름 되고 비가 되어 陽臺에서 만나 보세.

相如欲挑卓文君　司馬相如 본받아서 탁문군 꾀어 내려니,
多少情懷已十分　마음 속 품은 생각 벌써 흠뻑 깊어지네.
紅粉墻頭桃李艶　담머리에 피어 있는 요염한 저 桃李는,
隨風何處落繽紛　바람에 흩어지며 고운 봄을 앗아가네.

好因緣邪惡因緣　예쁜 인연 되려는지 궂은 인연 되려는지,
空把愁腸日抵年　부질없는 이내 시름 하루가 삼추 같네.
二十八字媒已就　넘겨 보낸 시 한 수에 가약 이미 맺었나니,
藍橋何日遇神仙　藍橋 어느 날에 고운 님 만나질까.[36]

35)『金鰲新話』, 해석본: p.26.
36)『金鰲新話』, 해석본: p.28.

이러한 시로써 응하게끔 만든 것도 다분히 의식적이요, 또 이생의 시를 받아보고, “도련님은 의심치 마십시오. 황혼 가약 정합시다.”[37]라고 하면서 만날 시간과 장소, 그리고 방법까지 이끌었던 이도 최랑이다. 그리고 또 담을 넘어온 이생을 맞이해 이미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겠노라고 단언하는데 반해, 이생은 아래와 같은 시를 읊조리며 망설인다. “이 다음 어쩌다가 봄소식이 샌다면 무정한 비바람에 더욱 가련하리라.”[38]이에 최랑은 아래와 같이 이야기한다.

> “저는 애당초 도련님과 함께 부부되어 끝내 남편으로 모셔 오래도록 즐겁게 지내려 하였는데, 도련님께서는 어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비록 여자의 몸이오나 조금도 걱정함이 없는데, 하물며 대장부의 의기를 가지고서 이런 약한 말씀까지 하십니까? 이 다음날에 규중의 비밀이 누설되어 부모님께 꾸지람을 듣게 되더라도 제가 혼자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39]

이러한 측면은 세조의 왕위 찬탈에 대해서는 굉장한 저항의식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직접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상태가 되는 면에서 김시습과 비슷하다. 김시습은 세조의 정권이 왕도가 아니고 패도라고 생각하였고 그것은 전왕에 대한 절의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육신과 같이 죽음으로 맞서지 못하고 생육신[40]으로 남아 종생 산야에 묻혀 세상을 피하면서 비판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무의식으로 스스로의 소극성을 비판하고, 적극적인 절의를 사모하게 된다. 그것이 작품 <이생규장전>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

37) 將子無疑, 昏以爲期.
38) 他時漏洩春消息, 風雨無情亦可憐.
39) 本欲與君, 終奉箕帚, 永結歡娛, 郞何言之若是遽也? 妾雖女類, 心意泰然, 丈夫意氣, 肯作此語乎? 他日閨中事洩, 親庭譴責, 妾以身當之
40) 조선 세조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탈취하자 세상에 뜻이 없어 벼슬을 버리고 절개를 지킨 여섯사람. 사육신의 대칭으로 생육신이라 하는데, 金時習 · 元昊 · 李孟專 · 趙旅 · 成聘壽 · 南孝溫이다. 사육신이 절개로 생명을 바친 데 대하여 이들은 살아 있으면서 귀머거리나 소경인 체, 또는 방성통곡하거나 두문불출하며, 단종을 추모하였다.

<남염부주지>의 주인공인 박생은 유학에 뜻을 두고 일찍 太學館에서 修學하였으나, 한 번도 과거에 합격해 보지 못하여 항상 불쾌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뜻과 기상이 매우 고매하여 勢力에 굴복하지 않았으므로 남들은 그를 오만한 청년이라 부르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남과 교제할 때에는 태도가 성실하고 순박하였으므로 마을 사람들이 다 그를 칭찬하기도 했으나, 세상이 자신의 진가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아 선비로서 품고 있는 높은 뜻을 펼칠 수 없다는 정신적인 고립감 속에 사는 사람이다.

이러한 박생의 모습은 역시 작자 자신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려서 세종에게까지 이름이 알려질 만큼 총명했던 김시습은 입신양명을 꿈꾸며 자랐으나 과거의 실패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한다. 또한 단종을 폐위시킨 세조와 세력가들에 동조하지 않고 입산하여 방랑생활을 함으로써 강직한 절개를 보인다. 김시습은 이와 같은 자신의 높은 뜻을 박생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금오신화』 다섯 편 중 김시습의 자서전적인 내용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작품이 <용궁부연록>이다. 이 작품은 김시습이 주인공 한생을 통하여 그의 詩才를 뽐내고, 스스로 왕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을 그린 것으로, 이는 그의 무의식 속에서의 자부심이 드러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삽입시가 유난히 많은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인데, 여기서 그가 詩才를 과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꼭 필요해서 시를 삽입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시재를 자랑하다 보니 자연 유기성이 결여된 것이라 하겠다.

> 고려 때 한씨 성을 가진 서생이 살고 있었는데, 젊어서부터 글을 잘 지어 조정에 이름이 알려져서 문사로 평판이 있었다.[41]

41) 『金鰲新話』, 해석본: p.156.

한생을 소개하는 대목인데 실제 김시습과 같은 인물이다.

> 下士의 어리석은 백성은 초목과 함께 썩은 몸이 온데, 어찌 감히 거룩하신 임금님께 외람되어 융숭한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용왕은 말했다. 오랫동안 선생의 훌륭한 명성을 들어왔습니다만, 오늘에야 모시게 되었습니다.[42]

한생은 비록 조정에까지 이름이 알려진 文士이긴 하지만 이렇게 임금의 대접을 받은 적이 없다. 선비라면 누구나 이렇게 임금에게 인정받기를 무의식적으로 원했을 것이다. 김시습도 또한 그랬을 것이다.[43]

다음은 용궁에 초대되어 용왕으로부터 상량문을 지어 달라는 부탁을 받는 장면이다.

> 다만 없는 것이 상량문입니다. 풍문에 들으니 선생께서는 명성이 삼한에 자자하고 재주가 백가에 으뜸간다 하므로, 특별히 부하들을 먼 곳으로 보내어 모셔 오게 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상량문을 한 편 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4]

한생은 용왕에게 '이름이 삼한에 떨치며 재주가 백가에 으뜸간다'는 인정을 받았다. 글쓰기를 마치고 곧 용왕에게 받치자, 용왕은 크게 기뻐하여 이에 세 용왕 에게 명하여 그 글을 차례로 보게 하니 세 용왕이 모두 떠들썩하게 감탄하고 칭찬하였다.

이 장면은 김시습의 어릴 때를 회상하게 한다. 김시습도 어린 시절, 탁월한 글재주를 인정받아 조정에 초대되어 가서 세종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일이 있었다. 즉, 이 작품은 김시습 자신이 세종대왕의 은총을 받은 과거를 추억하면서 현재의 방랑생활에서 인생행로의 종착점을 모색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곧 글 잘하는 한생은 김시습 자신을, 용왕은 세종대왕, 용녀는 문종과 단종을 의미하고, 수

---

42) 『金鰲新話』, 해석본: p.158.
43) 송주익, 「금오신화의 작가의식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37.
44) 『金鰲新話』, 해석본: p.150.

정궁은 경복궁을 지칭하고, 상량문을 쓴 것은 세종이 김시습의 재주를 시험한 것이며, 용왕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세종이 김시습에게 내린 비단 오십 필의 하사품을 지칭한 것이고, 용궁에서 본 신기한 기구들은 세종 때의 과학 기구들을 지칭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용왕국에 초대받은 꿈에서 깨어난 한생이 세상의 명리를 버리고 산 속에 숨은 것은, 세종대왕의 은총을 받은 김시습이 과거의 화려했던 추억을 되뇌이면서 방랑의 길을 떠났음을 나타낸다. 세상과 맞지 않아 평생을 고통스럽게 보내야 했던 김시습에게 있어서 세종의 부름을 받고 궁중에 들어가 재주를 뽐낼 수 있었던 경험은 세상과 단 한번 가졌던 화합의 장이었고, 이것이 세상과의 합일을 바라는 시습의 원이 작품에서 형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지금까지 『금오신화』속 주인공들의 성격과 언행에서 우리는 작가 김시습의 생애와 그의 자서전적인 모습을 살펴보았다. 『금오신화』의 주인공들은 일상적인 삶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에 속해 있으므로 그들은 세상에 대해 아웃사이더로 존재해 왔다. 그것은 실제로 현실세계에서 아웃사이더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김시습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재주가 뛰어났지만 어디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었던 외로운 유학자의 모습이 『금오신화』곳곳에서 배어나온다.

2. 욕망 반영

김시습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벼슬에 올라 자신의 이상과 포부를 단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하고 생을 마친 불우한 인물이다. 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벼슬자리에 오르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당시 정치상황과 자신의 세종에 대한 고착관념으로 인하여 그는 과거응시의 기회를 포기하였다. 즉 단종 원년에 실시하는 초시에는 합격하였으나 증광시에는 낙방을 하였고, 그리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식년과를 보려고 수학하던 중 계유정난으로 인하여 스스로 응시하지 않았다.[45] 불의가 판치는 조정에 들어가 도덕적 갈등을 겪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피하는 것이 마음 편하리라 생각하고 방랑의 길을 떠난 것이다.

그렇지만 벼슬자리에 오르려는 야망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초월한 것은 아니었다. 단적인 예로, 세조가 죽고 성종이 즉위하자 금오산실에서 상경한 경우가 그렇다. 세조는 매월당이 원각사 낙성식에 참석하여 지은 원각찬시를 읽고 크게 칭찬하면서, 매월당을 그의 가까이에 두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그는 재삼 부르는 것을 뿌리치고 금오산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새 임금 성종이 총명하여 만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학자와 문사를 우대하고, 인재를 등용한다는 소문을 듣고, 매월당은 불편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세상을 만나서 한번 나아가 도를 펼칠 수도 있으리라는 기대를 걸고 상경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직도 세조의 妃인 정희대비가 정사를 간섭하고 구신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리하여 매월당은 질병으로 인해 금오산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성동에 암자를 택하여 기거하면서 종종 성안에 남루한 복장으로 나타나 아이들의 웃음꺼리가 되기도 하고, 고관의 행차를 막아 사람들의 놀라움을 사기도 했다. 이와 같은 매월당의 행동은 곧 자신이 원하는 현실욕구가 실현되지 못하는데서 오는 원망의 위장된 표현이다.

따라서 작품『금오신화』에 그의 욕망의식이 엿보이는 것은 필연적인 심리작용이라 할 수 있다. 그의 현실욕망이 가장 적나라하게 투사된 작품은 <남염부주지>이다. <남염부주지>의 주인공 박생은 김시습과 처지가 매우 유사하다.

> 그는 유학에 뜻을 두어 일찍 태학관에서 보강하였으나, 한 번도 과거에 합격해 보지 못하여 항상 불쾌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는 뜻과 기상이 매우 고상하여 세력에 굴복하지 않았으므로 남들은 다 그를 오만한 청년이라 하였다.[46]

---

45) 정주동,『매월당 金時習 硏究』, 신아사, 1965, pp.56~58.
46)『金鰲新話』, 해석본: p.123.

이러한 박생이 '일리론'이란 논문을 지어서 자신을 깨우치기도 하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내 일찍이 옛 사람의 말을 들으니, 천하의 이치는 오로지 한 가지가 있을 뿐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두 이치가 아니다. 이치란 무엇이냐…이른바 이치란 것은 일용사물에 있어서 각각 조리를 가지는 것이니, 예를 들면, 부자의 사이에는 사랑을 다하여야 함을 이름이요, 군신의 사이에는 의리를 다하여야…이것이 이른바 도이다…이러한 방법으로 추구해 가면 천하와 국가도 모두 여기에 포괄되고 통합될 것이므로, 천지의 사이에 참여하여도 위반됨이 없을 것이며, 귀신에게 질정하더라도 의혹되지 않을 것이며, 고금을 통하더라도 망각되지 않을 것이다. 유학자가 할 일은 오직 이것이다. 천하에 어찌 두 가지 이치가 있을 수 있겠는가?[47]

세조의 패도와 자신의 의지로 좌절되었던 벼슬길에 대한 미련을 박생의 일리론으로 합리화시키고 있는 대목이다. 천하에 어찌 두 가지의 이치가 있을 수 있겠는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시습의 세종에 대한 고착관념을 엿볼 수 있기도 한 부분이다.

꿈결에 박생은 염왕의 초빙으로 남염부주에 가게 되는데, 그를 맞이하는 염왕의 예우가 매우 극진하다.

> 말을 마치자, 수문장은 허리를 굽혀 경의를 표하더니 빠른 걸음으로 뛰어 성안으로 사라졌다. … 얼마 아니되어 바람을 타고 어떤 수레가 달려 오는데, 위에는 연좌를 설치하고 그 곁에는 예쁜 동자와 동녀가, 한 사람은 불자를 잡고 한 사람은 일산을 들고 있었으며, 무예와 나졸들이 창을 휘두르며 호령하면서 따라왔다. 박생이 머리를 들고 멀리 바라보니 그 앞에 세겹으로 된 철성이 있고 높다란 궁궐이 금으로 된 산 밑에 서 있는데, 뜨거운 불꽃이 하늘까지 닿도록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48]

---

47) 『金鰲新話』, 해석본: p.125.
48) 『金鰲新話』, 해석본: p.128.

매월당의 권력욕이 대단한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 염왕과 그 권력으로 극히 모셔지는 박생을 통하여 획득되고 있는 장면이다. 특히 금으로 된 산 밑에 있는 궁궐과, 뜨거운 불꽃이 하늘까지 닿도록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 것은, 불의와 부패가 존재할 수 없는, 청정하고 신성한 정치의 장으로서의 궁궐을 상징한다.

> 나는 인간 세상에 있을 때, 나라에 충성을 다 바치며 힘을 내어 도둑떼를 토벌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맹세하기를, 죽어서 마땅히 여귀가 되어 도둑떼를 죽이리라 하였는데, 죽은 뒤에도 그 소원이 남아 있었고, 충성심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흉악한 곳에 와서 군장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내게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전세의 인간에서 부모나 임금을 죽이는 일을 한 대역이나 간흉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의지해 살면서 내게 제어를 받아 그릇된 마음을 고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사심없는 사람이 아니면 하루도 이 땅의 군장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들으니, 그대는 정직하고 뜻이 굳어 인간 세상에 있으면서 지조를 굽히지 않으셨다 하니 진실로 달인이십니다. 그러나 그대의 뜻을 세상에 한 번도 펴보지 못하였으니, 마치 형박이 티끌이는 벌판에 버려지고 밝은 달이 깊은 못에 잠긴 것과 같습니다. 양장을 만나지 못하면 누가 지극한 보물을 알아주겠습니까? 어찌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시운이 이미 끝나서 장차 이 자리를 떠나야 하겠고, 그대도 역시 명수가 이미 다했으므로 곧 인간 세상을 하직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맡아 다스릴 이는 그대가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49]

여기서 부모나 임금을 죽이는 일을 한 대역이나 간흉은, 세조와 그를 둘러싼 측근을 일컫는 것으로, 오랫동안 누적되었던 분노가 무의식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환상을 통해 그들을 마음껏 경멸하고, 현실에서 획득하지 못한 권력이 공상 속에서는 박생을 통하여 염왕에게 달인으로 인정받으며 그의 권좌까지 이어받고 있다. 매월당이 등장인물 염왕과 박생을 통하여 자신의 정치이념을 피력하고 있는 대목에서도 현실에서는 벼슬에 오르지 못했지만, 만약 자신이 정치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해보겠다는 정치이념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벼슬에 오르는 것은 아마 평생 삶의

49) 『金鰲新話』, 해석본: p.143.

목적이었을지도 모른다. 다만 그는 환상을 통해서만 그것을 성취할 수 있었고, 잠시나마 스스로를 위안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은 <용궁부연록>에 투영된 김시습의 욕망의식이다.

> 준마를 문 밖에 대기시켰사오니, 사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그들은 몸을 굽혀 한생의 소매를 잡고 문 밖으로 모셨다. 거기에는 과연 총마 한 필이 있는데, 금안장 옥굴레에 누런 비단으로 배띠를 둘러 놓았으며, 날개가 돋혀 있었다. 종자는 모두 붉은 수건으로 이마를 싸고 비단 바지를 입었는데 십여명이나 되었다. 그들이 한생을 부축하여 말 위에 태우자, 일산을 쓴 사람이 앞에서 인도하고, 기악이 뒤를 따랐다. 그리고 그 두사람도 홀을 잡고 따랐다.[50]

<남염부주지>의 박생이 염왕에게 초빙되어 남염부주에 가는 것보다도 더욱 화려한 행렬이다. 이것은 매월당이 환상을 통해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장면으로, 즉 그의 권력욕이 성취되는 것이다.

한생이 용궁의 용왕에게 초대 받는 것은, <남염부주지>의 박생이 청정하고 신성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치의 장으로서의 궁궐과 이상적인 군주에 의해 초빙되는 경우와 같이, 매월당의 무의식에 자리잡고 있는 이상적인 국가와 임금으로부터의 초대됨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이상과 포부를 펼칠 수 있는 곳은 그러한 곳이어야만 한다는 무의식의 표출이다.

또한 금오신화의 각 부분에서 매월당의 부에 대한 욕구가 곳곳에 드러나 있다. <이생규장전>에서, 이생과 최처녀가 만나 나누는 대화를 통해 최씨가의 부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 이곳은 저희 집 뒷동산에 있는 작은 누각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무남독녀이므로 여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연못가에 이 누각을 지어 두시고 봄이 되

50) 『金鰲新話』, 해석본: p.185.

어 명화가 만발할 때는 향아와 더불어 유쾌히 놀게 한 것입니다. 부모님 계신 곳은 여기서 가깝지 않아 비록 웃으며 큰 소리로 이야기해도 쉽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51]

최처녀가 거처하는 집의 규모가 매우 거대하고 화려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집의 규모 뿐만 아니라 방 내부도 명화로 장식되어 있다. 이생도 시골에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고 있는 집안이다. 또한 이생과 최처녀가 시를 주고 받으며 나누는 즐거움 자체가 부유한 귀족들이나 누릴 수 있는 생활이다.

이것은 김시습의 실제 삶과는 매우 대조적인 이미지이다. 방랑과 은둔으로 평생을 지낸 시습은 부를 축적할 기회도 없었고, 따라서 그의 생활은 궁핍을 면할 수 없었다. 당시 곳곳에는 절 없는 곳이 없었는데, 중이 어디를 가나 절을 찾으면 숙식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시습도 중의 차림을 하고 쉽게 방랑의 길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밖에도 <취유부벽정기>에서 부호 홍생과 시녀를 거느린 왕족 기씨녀, <만복사저포기>에서 귀족가문의 여인 등은 부를 향유한 상태이므로, 놀이 상대를 찾아 술잔을 기울이고 시를 주고 받으며 즐거움을 누린다. 이러한 생활은 일부 귀족들이나 할 수 있는 생활이다.

매월당은 현실의 삶에서는 비록 가난했지만, 『금오신화』라는 환상을 통해서, 부유함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안락함이나 화려함의 극치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를 향유하고 싶은 욕구가 『금오신화』를 통해 노출된 것이기도 하다.

51) 『金鰲新話』, 해석본: p.30.

Ⅴ. 『금오신화』에 투영된 현실비판의식

1. 여인들의 절의

작품 속에서 절의정신이 잘 나타난 작품은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정기>이다. 세 작품은 주로 여주인공의 삶을 통해 이러한 절의정신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우선,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절의정신은 여인이 부처님께 올린 축원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 아무 고을에 사는 소녀 아무는 삼가 부처님께 아룁니다. 지난번 변방의 방비가 무너져 왜구가 침범해와 싸움은 눈앞에서 치열했고 봉화는 몇 해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왜적이 집을 불사르고 백성을 붙잡아갔으며, 사람들이 동서로 달아나고 도망해가니 친척과 노복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가냘픈 몸으로 멀리는 피난을 못 가고 깊숙한 골방으로 숨어들어 끝내 굳건히 정절을 지켜 치욕을 당하지 않고서 난리와 화를 면했습니다.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여자로서 수절함이 그르지 않았다고 하여 한적한 곳으로 옮겨 잠시 초야에 살게 해 주셨는데 그것도 어느덧 3년이나 되었습니다. …… 제발 소녀를 불쌍히 여기시어 각별히 돌봐주십시오 …… 일찍이 배필을 정해주시어 즐거움을 얻게 해주심을 간절히 빌어마지않습니다.[52]

축원문에 나타난 '왜구가 침범해와', '봉화', '친척과 노복이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말을 통해 여인의 한스런 삶은 개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외풍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외풍의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가냘픈 몸으로 멀리는 피난을 못 가고 깊숙한 골방으로 숨어들어 끝내 굳건히 정절을 지켜 치욕을 당하지 않고서 난리와 화를 면했습니다." 라는 부분을 통해 여인이 정절을 자신

52) 『金鰲新話』, 해석본: p.28.

의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본문 전체를 통해서 축원문에서 말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여자는 정절을 지키느라고 죽었다는 사실을 안다. 정절을 잃어버리기 쉬운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여자가 정절을 굳게 지키려다가 귀한 생명까지 버린 것이다. 이를 통해 여자가 정절을 생명보다 더 중시하는 절의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여인의 대상날에 양생과의 마지막 대화에서도 변함없는 정절정신을 엿볼 수 있다.

> 당신의 동정을 얻어 백년의 높은 절개를 바쳐 술을 빚고 옷을 기워 평생 지어미의 길을 닦으려 했습니다만 애닯게도 숙명적인 이별을 위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53]

이 대목에서 여인은 저승으로 떠나면서도 양생을 평생 모시고 끝까지 정절을 지키고자 한다. 이러한 정절의식은 명문 양가 규수로서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정절관은 비록 여성에게 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도 있음을 볼 수 있다. <만복사저포기>의 맨 끝의 대목에서 양생이 여인과 이별한 뒤

> 그 후 다시는 양생은 장가가지 않고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고 있다 하더니 그러고는 어찌 되었는지 아무도 그의 일을 아는 이가 없었다 한다.[54]

라고 하여 양생이 다시 장가들지 않음으로써 절개를 지켰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여인과 양생의 모습에서 우리는 김시습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단종 폐위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변절했지만, 그는 깊숙이 숨어 끝내 절의를 지키고 정도에서 벗어난 행실을 저지르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그의 뿌리 깊은 유교사상에서 비롯된 정신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음으로 <이생규장전>에서는 주인공 최랑을 통해 절의정신이 잘 드러나 있다.

---

53) 『金鰲新話』, 해석본: p.53.
54) 『金鰲新話』, 해석본: p.54.

<이생규장전>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남녀 주인공간의 대비되는 성격이다. 이는 소설의 전개과정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요소이다. 그들의 혼인과 재회는 여자인 최랑이 추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 둘은 담을 사이로 시를 주고받은 뒤, 최랑은 대담하게 남자 이생에게 저녁에 만나자는 기약을 하였다. 그런 후, 최랑은 이생한테 자신의 속마음을 시구를 통해서 토로하면서 혼인하고자 하는 願望을 말해주었다.

그들의 밀회가 이생의 아버지에게 걸린 후에 이생은 아버지의 명령에 대해 아무 반항 없이 최랑을 떠나 시골로 내려간다. 하지만 최랑은 상사병에 걸려 병상에 눕게 되고 또한 진실을 알게 된 부모에게 목숨을 걸고 "이생과 함께 저 아래 황천에서 다시 노닐지언정, 맹세코 다른 가문에는 시집가지 않겠다."고 한다. 여자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마침내 닥쳐왔던 혼사장애를 극복한 것이다. 여기서 여주인공 최랑은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동시에 절의가 높은 사람이라는 점이 나타난다.[55]

그 후, 홍건적이 서울을 점령하고 임금은 복주로 피난을 가고, 적들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과 가축을 죽이고 잡아먹으니, 그의 가족과 친척들은 능히 서로 보호하지 못하고 동서로 달아나 숨어서 제각기 살기를 꾀하였다. 이생은 가족을 데리고 궁벽한 산골에 숨었더니 한 도적이 칼을 빼어들고 뒤를 쫓아왔다. 이생은 겨우 달아났으나 최여인은 도적에게 잡힌 몸이 되었다. 이생은 한 도적에게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적하거나, 싸우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가 겁탈당할 위기에 처하였는데도 다만 혼자서 달아나 버렸다. 그러나 최여인은 잡혀서 조차 큰 소리를 친다.

> 호랑이 창귀같은 놈아! 나를 죽여 씹어 먹으라. 내가 차라리 죽어서 시랑의 밥이 될지언정 어찌 개 돼지와 같은 놈의 배필이 되겠느냐![56]

---

55) 한릉, 「金鰲新話와 剪燈新話의 作家意識 比較硏究」,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33.

56) 『金鰲新話』, 해석본: p.85.

최여인은 도적에게 잔인하게 살해되면서까지 정조를 지킨다. 정조를 지킴으로써 남편에 대한 아내로서의 절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생이 부모와 아내를 잃고 무기력하게 허탈감에 빠져 있을 때 최랑은 적극적으로 幻體를 쓰고 찾아온다. 홍건적의 난으로 당한 죽음을 극복하고, '옛날의 굳은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절의의 행위인 것이다.[57]

최여인이 도적에게 일편단심을 피력하지 않았다면 살아남을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절의를 지키며 떳떳이 죽어간 것이다. 이것은 김시습의 절의정신의 발로이며, 단종의 폐위사건으로 목숨을 바친 사육신과, 숨어버린 김시습과 같은 생육신들을 우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도적의 손에 쓰러지면서까지 열렬한 사랑을 이룩한 이 사실은 김시습 자신이 세조정권에 지조를 팔지 않고 끝까지 보답하겠다는 염원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취유부벽정기>에서 기씨녀를 통해 나타난 절의정신을 살펴보겠다. 주인공 홍생이 기씨를 만나 고국의 흥망을 탄식하는 시를 주고받은 뒤 홍생이 계보를 물으니 기씨녀가 자신의 가문에 대한 말을 하는 대목을 보면

> 저는 은나라 왕실의 후손인 기씨의 딸이요, 우리 선조 기자께선 실로 이 땅의 왕이 되시자 예법과 정치 제도를 한결 같이 탕왕의 가르침에 따라 행하셨고, 여덟 가지 금법으로 백성을 가르쳤으므로 문물이 빛나기를 천 여 년이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나라의 운수가 어려워지더니 재환이 문득 닥쳐와 선고께서는 필부의 손에 패전하여 마침내 나라를 잃게 되었고 위만이 이 시기를 틈타 그 왕위를 훔쳤으므로 조선의 왕업은 여기서 끊어지고 말았소. 저는 이 어지러운 때를 당해 굳게 절개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소.[58]

그는 본래 기자조선의 공주였는데 위만에 의해 고조선이 망한 후에 절개를 지키

57) 신혜숙,「金鰲新話의 作家意識 硏究」,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34.
58)『金鰲新話』, 해석본: p.112.

려고 죽을 각오를 하였다. 나중에 비록 仙人의 도움으로 신선이 되어[59] 그 즐거움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舊國은 여전히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 여기서 탕왕의 치적과 기자의 충절과 인의는 모두 유교적인 왕도주의를 이상으로 삼은 것이며, 위만이 보위를 훔쳤다고 한 것은 무력적인 以臣伐君의 폐도를 규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씨녀는 기자의 딸로서 先考 준왕이 나라를 잃고 위만이 보위를 도둑질하자, 절개를 지켜 천상을 유랑하다 조상을 참배하고 회포를 풀기 위해 부벽정에 찾아왔다고 한다.

기씨녀의 굳은 절개는 곧 작가의 절의정신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역시 단종이 불의한 세력에 나라를 잃고 어지러운 때를 달하였을 때 굳게 절개를 지키려고 스스로 맹세하고 죽기만을 기다린 생육신의 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김시습은 소설을 통해 자신의 절의정신을 확인하고 긍정하며 동시에 절의를 지키느라 외롭게 지내야 하는 자신을 위로하고 있다. 또한 현실에서 절의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절의를 지향하게 하려는 의지도 엿보인다. 김시습이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정기>를 창작한 동기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2. 지도자의 애민

김시습의 정치적 견해는 <愛民義>에서 뚜렷이 제시되고 있다. <애민의>의 논설은 근대 민주주의 사상과 동궤를 이루고 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하다. 대개 백성이 추대하여 태어

59) 신선이 된 것도 사실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기씨녀도 또한 절의를 지키느라 죽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난 자가 비록 임금이 되었더라도 임금의 자리에서 부리는 것은 실로 백성들뿐이다. 민심이 따르면 영원토록 임금이 될 수 있지만 민심이 이탈하면 하루 저녁이 못되어서 필부가 된다. 임금과 필부 사이에는 털끝만한 간격이 없었으니 삼가야 하지 않겠는가[60]

김시습은 임금과 필부 사이에 털끝만한 간격이 없다고 했다. 오히려 민심이 따르면 영원토록 임금이 될 수 있지만 민심이 떠나면 필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의 방법으로 仁政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인정도 별것이 아니라, 조세와 부역을 경감시켜 백성들로 하여금 제때에 농사를 짓도록 놓아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시습이 인정을 간단히 설명했다고 해서 그것이 간단한 일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15세기 후반의 현실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가 전국을 유랑하며 무수하게 쓴 이른바 愛民詩를 보면, 그토록 간단한 인정이 얼마나 행하기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나무를 조각해 농부가 밭갈이를 하는 모습을 만들어 책상 옆에 진열해 놓고 온종일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울면서 태워버렸다는『김시습전』의 내용을 볼 때, 그는 관념 이상으로 실천을 중시하고 생산자로서 농민의 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무기력한 관념의 추수자로서 당대의 유학자들에 대한 비판적 함의가 내포되었을지도 모른다.[61]

이러한 김시습의 애민정신은『금오신화』에도 나타나 있다. 특히, <남염부주지>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사람이 세상에 날 적에, 하늘은 어진 성품을 태워 주었고 땅은 곡식을 길러 주었고 임금은 법령으로써 다스렸고 스승은 도의로 가르쳤고 부모는 은애로 길러 주었으니 이로 인하여 오륜이 차례가 있게 되고 三綱이 문란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상서로운 일이 닥쳐오고 이를 거스리면 재앙이 옵니다.[62]

---

60) 金時習, <愛民義>,『梅月堂集』, p.241.
61) 박태상 · 윤용식,『고전소설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9, p.189.
62)『金鰲新話』, 해석본: p.141.

라 하여 하늘이 준 성품을 잘 보존하고 땅의 곡식을 길러 백성이 잘 살도록 하고 각자 맡은 바를 완수함으로써 상서로운 일이 세상에 만연하기를 희구했던 것이다.[63]

>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포학으로 백성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이 비록 두려워서 복종하는 것만 같지만 마음속에는 반역할 의사를 품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일이 지나면 마침내 큰일을 일으킵니다. 덕망이 없는 사람이 권력으로 왕위에 올라서서는 안 됩니다. 하늘은 곡진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행사로써 보여 처음부터 끝까지 이르게 합니다. 상재의 명령은 실로 엄합니다. 대개 나라는 백성의 나라이고 명령은 하늘의 명령입니다. 천명이 가버리고 민심이 떠나면 자기 몸을 보전하려 해도 어찌 보전되겠습니까.[64]

여기서는 임금에게 백성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섬뜩한 느낌을 줄 정도로 표현하고 있다. 임금은 자칫하면 자신의 목숨마저도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미약한 존재인 것이다.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어떤 비극도 면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덕망이 없는 사람이 권력으로 왕위에 올라서는 안 된다는 말은 세조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에 가깝다. 나라는 민본주의로 다스리되 천명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시습의 애민정신은 공자의 덕치주의와 맹자의 민본정신인 “가장 귀한 것은 국민이고 그 다음이 국가이고 가장 가벼운 존재가 지도자”라는 내용과 일맥상통 한다고 할 수 있다.[65]

염왕의 견해는 박생의 견해와 일치하는데, 이상적인 군주상을 표현한 禪位文을 보면

---

63) 김진두, 「南炎浮洲志에 나타난 東峯의 愛人精神考」, 『공주대학교 논문집』 24 집, 1986, p.69.

64) 『金鰲新話』, 해석본: p.144.

65) 김진두, 「금오신화와 전등신화의 비교연구」, 『공주대학교 인문논집』 21 집, 1983, p.72.

정직하고 사심이 없으며, 강직하고 과단성이 있으며, 여러 사람을 포용하는 자질을 갖추고 있고 몽매한 사람을 깨우쳐주실 재주를 가지고 계십니다. 원달함이 비록 살아 계실 동안에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기강을 바로잡는 일이 실은 죽은 후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영원히 믿고 의지할 분이 선생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마땅히 도덕으로 인도하고 예법으로 정제하여, 백성들을 지극히 착하게 만들어 주시고, 몸소 실천하고 마음을 깨달아 세상을 태평하게 해주실 일입니다.[66]

박생의 성격을 묘사한 듯한 부분도 있으나 이상적인 군주의 자질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다. 나라는 민본주의로 다스리되 천명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3. 민족의 역사

김시습의 역사의식은 <취유부벽정기>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이 작품에는 작가 김시습이 관서지방을 여행하던 중 평양을 방문하여 둘러보게 된 기자릉, 부벽루, 능라도, 기린굴, 조천석, 영명사 등 역사적 고적지에서의 체험이 밑바탕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김시습은 箕子朝鮮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통해 민족의 정통성에 대한 확립과 왕조의 단절에 대한 비판을 동시에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는 작품의 지리적 배경에 대한 묘사, 주인공 홍생이 지은 시에서 드러나고 있다.

평양은 고조선의 서울이다.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정복하고 난 후에 기자를 찾아가서 정치하는 방법을 물으니, 그는 천하는 다스리는 아홉 가지 큰 법을 일러주었다. 이에 무왕은 기자를 조선왕에 봉하고 신하로 삼지 않았다. 이곳의 명승지는 금수산 · 봉황대 · 능라도 · 기린굴 · 조천석 · 추남터 등이 있는데 이것이 모두 고적이며 영명사의 부벽정도 그 고적 중의 하나이다. 영명사는 곧 고구려 동명왕의 구제궁터이다. 이 절은

66) 『金鰲新話』, 해석본: p.143.

평양성 밖 동북쪽 20리쯤 되는 곳에 있는데, 긴 강을 굽어보고 평평한 들판을 멀리 바라보며 아득하기 끝이 없으니 참으로 경치가 좋은 곳이다.[67]

<취유부벽정기>의 서두는 이렇듯 지리적 배경의 묘사로 시작된다. 고조선의 서울인 평양을 시작으로 고구려 동명왕의 구제궁터인 영명사와 부벽정 주변의 경치 묘사이다. 이는 역사를 회고하기 위한 의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인공인 홍생이 개성인으로서 평양에 갔다는 것은 그가 대변하는 역사가 고구려에서 고려로 이어지는 문화의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68] 이러한 점에 착안해 <취유부벽정기>를 임형택은 신정권에 소외된 개성인의 저항이라고 파악하기도 했다.[69]

그러나 여기서는 한 지방민의 저항의식 보다는 한민족 역사에 대한 '회고의 정'인 것을 알 수 있다. 홍생이 부벽루에서 읊은 회고시를 한 부분 살펴보면

仲秋月色正嬋娟　오늘이 한가위라 저 달빛은 곱구나
一望孤城一悵然　외로운 옛 성터를 바라볼수록 슬프도다
箕子廟庭喬木老　箕子廟 뜰 앞에는 늙은 숲이 우거지고
檀君祠壁女蘿緣　檀君祠 벽 위에도 담쟁이가 얽히었네
英雄寂寞今何在　영웅은 자취 없어 어디로 돌아갔느뇨
草樹依稀問幾年　초목만 依稀한데 몇 해나 되었더냐
唯有昔時端正月　옛날이 더욱 그립구나 둥근 달만 의구하도다
淸光流彩照衣邊　맑은 빛이 흘러흘러 객의 옷에 비치네.[70]

단군과 기자를 모신 사당이 퇴락해 있는 옛 성을 바라보며, "이곳을 지키고 있었

67) 『金鰲新話』, 해석본: p.98.
68) 이상택 · 윤용식, 『고전소설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8, p.189.
69) 임형택, 「현실주의적 세계관과 금오신화」, 『국문학연구』 13, 서울대학교 국문학연구회, 1971.
70) 『金鰲新話』, 해석본: p.102.

던 고구려의 영웅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며 묻고 있다. 고구려의 영웅들이 단군과 기자의 사당을 지키고 있었다는 점에서 고조선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나라라는 생각이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단군에 의해 세워진 우리나라의 정통성이 기자조선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고구려로 이어져왔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또한 단군왕검이 세운 고조선의 정통성이 기자에 의해 계승되었다는 생각이 나타나기도 한다. 홍생의 시에 감응을 받은 기씨녀는 홍생의 앞에 나타나 다음과 같이 신분을 밝히고 있다.

> 나는 은 왕실의 후손인 기씨의 딸이오, 내 선조 기자께서는 실로 이 땅의 왕이 되시자 예법과 정치 제도를 한결같이 탕왕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셨고 여덟 가지 금법으로 백성을 가르쳤으므로 천년이나 문물이 크게 빛났었소. 나라의 운수가 비색해지니 재환이 문득 닥쳐와 선고께서는 필부의 손에 패전하여 마침내 국가를 잃게 되었고, 위만이 이 시기를 타서 그 왕위를 차지하였으므로 조선의 왕업은 여기서 끊어지고 말았고 나는 어지러운 때를 당해 절개를 굳게 지키기로 맹세하고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소.[71]

기자는 무왕에 의해 조선의 왕으로 책봉되었지만, 무왕이 기자를 신하로 삼지 않았다고 한다. 기자는 조선의 왕이 된 후, 중국과는 별개의 독립된 국가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군에 의해 세워진 고조선의 왕통을 계승하는 일이었다는 말이다. 기씨녀는 홍생에게 자신의 내력을 소상히 말하며, 위만에 의해 기자조선이 멸망됨으로써 조선의 왕업이 끊어지게 되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이러한 기씨녀의 회고를 통해 작가 김시습은 민족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주체성의 확립을 도모하고 있다. 단군 조선에 의한 고조선설을 떠받쳐 주는 대안을 제시하여, 민족정통성을 역설함으로써, 당시 세조를 옹위한 집권층들의 역사의식을 비판하고 있다. 당시 집권층들은 중국 사대주의 사상에 바탕한 사관을 중심으로 정권

71) 『金鰲新話』, 해석본: p.112.

의 정통성을 인정받으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김시습은 이러한 당시의 사상에 반발하여 '기자조선설'을 따르며 민족정통성을 확립할 수 있는 사관을 제시하고 그것으로 당대의 모순된 정치형태의 왜곡을 비판하는 근거로 삼았던 것이다.

홍생은 기씨녀와의 만남을 통해 현실에서 망각하고 있었던 고구려와 단군, 기자조선 등의 과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과거에 대한 회고는 단지 감상적인 현실도피에 머물지 않고 왕권의 단절이라는 현실의 부조리함을 인식하는 계기로 발전한다.

김시습의 詠史詩를 보면 그가 역성혁명에 대해 갖고 있는 역사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은에게 충성하지 않고 은을 멸망시킨 주 무왕을 도운 여망을 비판하고, 주 무왕에게 끝까지 대항한 백이 · 숙제를 찬양하였으며 한나라를 다시 이으려는 광무제를 돕지 않았던 엄자릉을 조롱하여 왕권지속 우선의 역사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후세 성왕으로 존숭되는 주 무왕에 대한 그의 날카로운 비판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신하로서 임금을 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의 확고한 역사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주나라 무왕의 포악함은 당일에 있어서 그보다 더 심할 수가 없었다고 극언하면서 대개 장사도 지내지 않은 채 군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뒷세상에 불효하는 자의 근원이 되었던 것이며, 신하로서 임금을 시역했다 함은 뒷세상에 임금의 자리를 빼앗는 자의 근본이 되었다고 비난했다.[72]

이러한 점에서 그가 옛 고구려 지역의 출신으로 자신이 태어나기 43년 전에 망한 고려에 대한 회고의 정에 쌓이게 된 것은 당연하고, 이러한 감정은 어쩌면 단종을 퇴위시키고 왕위를 찬탈한 세조에 대한 불만으로 더욱 촉진되었을 것이다.

---

72) 金時習, <伯夷叔齊贊>, 『梅月堂集』 卷 19.

Ⅵ. 『금오신화』에 투영된 현실초월의식

1. 이상세계 설정

<남염부주지>는 김시습의 이상론적인 작품으로 지적되고 있다.[73] <남염부주지>는 박생이 꿈속에서 염왕을 만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스토리의 전부이다. 앞의 세 소설과는 달리 남녀의 애정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며『금오신화』다섯 편 중 유일하게 삽입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남염부주지>가 이처럼 단순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작가가 사건의 다양성, 이야기의 즐거움과 짜임새보다는 주제의 부각에 보다 큰 관심을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이 작품은『금오신화』의 다른 작품보다 당시 시대상과 유학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소설이 '유가적 합리주의에 입각한 천당지옥설 부정', '귀신설에 대한 부정'이라고 파악하는 것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한 견해이다. 작품의 일부분인 논설 부분은 작가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밝히기 위한 하나의 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작품의 내용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남염부주지>는 작품의 내용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주인공 박생에 대한 소개이고, 둘째는 주인공이 炎浮州에 가게 되며, 염부주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셋째는 주인공과 염부주의 왕 사이의 문답이다. 넷째는 주인공이 왕에게서 왕위를 물려받는 부분이다. 여기서 사건의 중심이 되는 배경은 '염부주'라는 공간이다. 사건은 대부분 염부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결국 주인공이 염부주의 왕위를 이어받는다는 결말은 <남염부주지>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염부주와 관련이 있다는 뜻이 된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것은 염부주는 결코 전통적인 낙원이자, 이상향이라고 말할

---

73) 최현옥,「금오신화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p.45.

수 없다는 점이다. 작품 앞부분에 염부주에 대한 묘사가 있다.

> 그 땅에 본디 초목도 없고 모래와 자갈도 없었으며, 발에 밟히는 것은 모두 구리가 아니면 쇠였다. 낮에는 거센 불길이 하늘까지 뻗쳐 땅덩이가 녹아내린다. 밤이 들면 차가운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와서 사라의 살갗과 뼈를 쑤셔대니, 몸에 부딪히는 장애를 견딜 수 없었다. 또한 쇠로 된 벼랑이 성처럼 서서, 바닷가를 따라 연하여 있었다. 거기에는 철문이 오직 하나만 있어, 굉장하였다. 그 문에는 자물쇠가 아주 굳게 잠겨 있었다. 문지기는 주둥이와 송곳니가 튀어나오고 험상궂고 사납기 짝이 없었다. 그 문지기는 창과 쇠몽둥이를 쥐고, 바깥에서 오는 자들을 막고 있었다. 성 가운데 사는 백성들은 쇠로 집을 지어 살았다. 그래서 낮에는 불에 데어 문드러지고 밤에는 얼어붙어 갈라지고는 하였다. 그들은 그저 아침과 저녁에만 구물구물 움직여서는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었다. 그렇다고 그다지 괴로워하지도 않는 듯하였다.[74]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염부주는 굉장히 살기 안 좋은 세계이다. 이에 대해 윤채근은 낙원의 鑄型에 지옥의 質料性을 부어 鑄造하는 지옥 형상을 한 낙원이라고 정의하였다.[75] 이 낙원은 비록 지옥의 형상을 지니고 있지만 그래도 낙원처럼 보이는 인간세상보다는 더 낫다. 이곳은 선비들이 지향하는 왕도정치가 실현될 수 있는 이상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생은 마지막에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고 염부주의 왕위를 물려받은 것이다.

김시습은 불교의 지옥을 모방해서 염부주라는 질서 있는 세계를 꾸몄다. 이 세계는 정직하고 지조가 높은 사람이어야 왕이 될 수 있고 왕이 거기에 사는 악령들의 그릇된 마음을 고쳐준다. 김시습은 자신과 유사한 유생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그로 하여금 이 세계의 왕이 되게 함으로써 자신의 공명 욕망을 해소했다고 하겠다. 결국 김시습 자신이 그 세계의 왕이 되어 세상의 그릇된 마음을 바로 잡아주고 왕도정치를 실현하여 이 세상을 완전한 이상향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이

74) 『金鰲新話』, 해석본: p.124.
75) 윤채근, 「금오신화의 미적원리와 반성적 주체」, 『고전문학연구』 14,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8, p.160.

다.

그리고 마지막에 염왕이 지은 禪位文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 마땅히 덕으로 인도하고 예법으로 통괄하여 백성들을 지선의 경지에 들어가게 해주고, 몸소 실천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세상을 태평하게 하여 주시오.[76]

이것은 염왕이 박생에게 나중에 정치할 때 어떻게 하라는 요구인데 왕도정치를 실천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박생과 三韓興亡을 이야기할 때, 염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는 백성을 폭압하거나 위협해서는 안 되고 덕망이 없는 사람은 힘에 의해 왕위를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것은 김시습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왕도정치관의 표현이다. 즉, 김시습은 작품 속 박생처럼 이상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용궁부연록>은 주인공이 꿈속에 용궁으로 초대되어 가서 겪은 일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염부주지>와 마찬가지로 <용궁부연록>에서는 사건의 주된 배경이 용궁이다. 주인공 한생은 어느 날 꿈속에서 저녁에 집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용왕의 초청을 받게 된다. 그를 맞이하러 온 무리의 행차는 다음과 같다.

> 그렇게 해서 문밖으로 나가자, 거기에는 과연 푸른 갈기의 말이 한 필이 있었다. 금 안장과 옥 굴레를 하였고, 누런 비단 머리띠가 덮여 있으며, 날개 같은 것이 돋아 있었다. 시종들은 모두 붉은 수건을 이마에 매고 비단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십여 명은 되었다. …(중략)… 그리고 깃발과 일산이 앞에서 인도하고 기악이 뒤를 따랐다.[77]

시종 십여 명과 깃발, 일산 및 기악까지 동원된 화려한 행차이다. 이를 통해 용왕이 한생을 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생은 용궁에서 또한 후한 접대를 받는다. 용왕이 친히 계단 아래로 내려와서 한생을 맞이하고 그를 높은 자리에 앉

76) 『金鰲新話』, 해석본: p.145.
77) 『金鰲新話』, 해석본: p.185.

혀 놓았다. 그리고는 뒤에 온 다른 용왕들에게 한생보다 더 낮은 자리를 권하였다. 세 용왕들은 이를 선뜻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자리를 양보하는 한생에게 사양하지 말라고 권하였다. 한생이 용왕들에게서 이런 후대를 받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인간세상의 '文章鉅公'이기 때문이다. 그가 용궁으로 초청된 연유도 이것이라고 한다.

> 풍문에 듣자니 수재께서는 이름이 삼한에 드러났고 재주가 모든 대가들 가운데 으뜸이라 하더군요. 그래서 특별히 멀리에서 초빙한 것입니다.

여기서 용궁계는 문사를 매우 중요시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용궁계는 또한 지조와 인의가 실현되는 세계이다. 용궁의 문은 '含仁之門'이라고 하고 용왕은 절운관을 쓰고 칼을 차고 簡을 쥐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용왕의 이 차림은 屈原의 모습이라고 하겠다. 굴원이 지조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용궁은 인과 지조가 드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용궁계는 문학적인 역량을 능히 펼칠 수 있는 세계이며 조화와 갈등이 없는 세계이다. 한생은 이곳에서 자신이 갖추고 있는 문장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으며, 신분이 각각 다른 신들과 같이 구속 없이 문학적인 풍류를 만끽할 수 있었다. 그는 용왕의 청에 응하여 상량문을 지어주었는데 용왕들의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는 자신을 위해 열린 潤筆宴에 참석해 용왕들과 더불어 시와 노래들을 감상하기도 하고 짓기도 하여 용궁에 특유한 환락을 누렸다.

潤筆宴 부분에 <용궁부연록>이 詩小說이라고[78] 불릴 만큼 시들이 많이 모여 있다. 때문에 소설의 서사구조가 취약하다는 평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많은 시들은 작가가 단순히 자신의 문학재능을 과시하려고 지은 것이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의도적인 작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다.

---

78) 박희승, 「금오신화의 심리표출양상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p.37.

잔치에 참석한 자들은 詩나 詞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문화적인 풍류를 즐긴 것이다. 말하자면 용궁은 용왕들을 비롯한 강한 문예취향을 가지는 존재들이 활동하는 세계이다. 이 세계에서 사람들은 문장으로 서로 인정하고 교류하여 문학적인 풍류를 찾는다. 따라서 이 세계는 하나의 이상적인 문장왕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왕국은 하등의 갈등과 근심이 없고 환락과 웃음만이 있으며 인의와 지조가 실현되는 질서의 세계다. 한생은 자신의 문장능력 때문에 이 조화로운 문장왕국으로 초청되어 여기서 문장 능력을 실컷 떨치고 인간세상에서 찾지 못하는 문화적인 환락을 즐겼다.

윤필연이 다 끝난 뒤에 한생은 또한 용궁의 승경을 유람하는 호사를 누렸다. 그는 여기서 인간세계에서는 보지 못하는 초월적인 힘을 갖춘 神物을 구경하고 용왕이 오르는 朝天樓에올라가기도 하였다. 이 부분은 윤필연 부분과 같이 한생이 용궁에서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환대들은 다 그가 문명이 높은 문사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세계는 용궁과는 너무나 다르다. 현실세계의 김시습은 한생과 똑같이 文才가 뛰어난 문사이지만 환대를 받기는커녕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정당하게 떨칠 기회도 얻지 못하였다. 용궁과 같이 문장 능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세계가 현실에서는 존재하기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는 문학적 재능을 펼치고 싶어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거의 평생 동안 방외에서 방랑하였다.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그는 현실에서의 어쩔 수 없음을 자각하고 <용궁부연록>을 통하여 이러한 그의 아쉬움을 피력한 것이다. 말하자면 김시습은 이 작품에서 이상적인 문장왕국인 용궁계를 설정하여 문명이 높은 문사 한생으로 하여금 거기서 환대를 받고 문학 재능을 실컷 떨치게 함으로써 현실에서 실현할 길이 없는 자신의 문화적 공명욕망을 해소하며 쓰임 받지 못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떨치고 환대를 받는 꿈을 그린 것이다.

요컨대 소설 <남염부주지>와 <용궁부연록>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가상세계를 설정하였다. 염부주는 비록 환경은 열악하지만 질서가 있는 세계로 이곳에서 김

시습은 박생을 통해 악령을 다스리는 정직한 왕의 모습을 보여준다. 즉, 낙원처럼 보이지만 지옥이나 다름없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진정한 왕도정치의 실현만이 현실을 낙원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염부주는 이러한 김시습의 염원이 충족될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이다.

또한, 용궁은 조화로운 문장왕국으로 주인공인 서생이 문사로서 존중을 받고 문학적 재능을 실컷 떨치므로 문학적인 풍류를 즐기고 있다. 이러한 서생의 모습은 김시습이 현실에서는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문화적 공명의 욕망을 해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김시습은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자신의 욕망을 염부주와 용궁이라는 이상세계를 설정함으로써 현실을 초월해 이루어 내고 있는 것이다.

2. 비극적・비현실적 결말

『금오신화』중에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정기>, <남염부주지>의 남자 주인공은 죽은 것으로 결말을 맺고, 나머지 두 편의 남자주인공은 不知所終으로 끝난다.

> <만복사저포기>: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살았다고 하는데, 그가 어디서 세상을 떠났는지 아무도 모른다.
> <이생규장전>: 이생도 몇 달 후에 아내의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 <취유부벽정기>: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분향하고 누웠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殯葬한 지 몇 달이 지나도 안색이 변하지 않았다.
> <남염부주지>: 꿈에서 깨어난 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어 버리고 염왕이 되어 돌아갔다.
> <용궁부연록>: 명산에 들어갔는데 그가 어디서 세상을 마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처럼『금오신화』다섯 편은 모두 비극적, 비현실적 결말을 맺은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추측컨대 이런 결말은 작가의 현실초월의식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추정하기 위해 작품분석에 들어가기로 한다.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정기>에서 남자 주인공들은 여자 주인공들을 만나서 같이 며칠간의 행복한 생활을 지냈다가 절의가 높은 여자에게서 同化를 받고 소극적인 성격을 일신하여 여자의 떠남에 따라 세상을 떠나거나 그 종적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이 며칠간의 생활에서 남녀는 상대의 소망을 풀어주었고 상대에게 만족을 얻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남자 주인공이 자신의 이상형을 찾았다는 것이다. 상대인 여자들은 다 성격과 절의 및 행동 면에서 그들이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완벽한 인물이다. 그들은 이런 이상형을 만나 같이 지냄으로써 자신을 극복하고 승화시켰다. 하지만 그런 이상형은 현실에 용납되지 않고 異界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이상형을 계속 추종하기 위해 현실을 포기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생각건대 김시습이 처하였던 현실도 여자들과 같이 절의가 높은 사람은 용납하지 않았다. 사육신과 생육신들도 다 절의가 높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작품 속 여자 주인공들과 똑같은 결과를 맞았다. 사육신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생육신은 종생 산야에서 은거하며 지냈다. 이런 은거 생활도 속세의 사람들 눈에는 일종의 不知所終으로 비칠지 모른다. 어쨌든 생 · 사육신은 다 절의를 추구하기 위해 현실세상을 버린 것이다. 김시습도 생육신 중의 일원으로서 친히 경험했던 이런 현실의 불합리함을 작품에 투영시켜 작품의 주인공들이 죽거나 不知所終 되었다는 설정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작품은 전기적인 원리로 초현실세계로 지속된다. 즉, 작품의 주인공들은 초현실세계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지낼 수 있는 가망성을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현실세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김시습의 현실초월의식의 발현이라 하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염부주지>와 <용궁부연록>에서 작가는 각각 두 개의 세계를 설정한다. 하나는 환경이 열악하지만 정치적 공명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염부주이고 또 하나는 문화적 공명을 실현할 수 있는 문장왕국인 용궁이다. 주인공들은 일단 이 두 세계를 체험하였다. 박생은 염부주에서 염왕에게 인정을 받고 왕위

를 물려준다는 기약까지 얻었다. 한생은 용궁에서 최고의 통치자들에게 문사로서 인정을 받고 그들과 극진한 환락을 누리고 조화와 즐거움이 충만한 용궁을 실컷 구경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꿈같은 이 짧은 체험을 끝내고 바로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조화롭지 못한 현실을 직면할 때 그들은 조금 전에 체험했던 이상적인 세계와 비교하여 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이상적인 세계로 회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추측된다. 박생은 걸린 병을 치료하지도 않고 家事를 처리하고 기약을 실천하러 갔다. 그러나 한생은 박생처럼 기약이 없고 또한 다시 갈 길도 없다. 다시 말해 그는 현실 세계에 계속 남아야 된다. 하지만 이미 인간세계에서 누릴 수 없는 환락과 풍류의 극치를 경험했던 그에게는 속세의 공명과 이익은 더 이상 미련이 없다. 그래서 그는 현실을 버리고 명산에 들어갔다. 인간 세상에 남아야 되지만 속세를 떠나버리고 용궁을 닮은 곳으로 찾아간 것이다.

사실 김시습도 인간세상에서 입신양명의 꿈이 실현된 다음에 속세를 떠나버리고 방외에서 소요하는 생활을 보내고 싶어 하였다. 다만 그는 불의의 현세에서 공명을 이루지 못하고 환상적인 세계에서 한생을 빌어 이루어야 되었다. 따라서 한생의 입산은 김시습이 공명을 이룬 다음에 하려던 생각의 투영이다. 여기서도 작가 김시습의 현실초월의식이 보인다.

결론적으로 『금오신화』의 다섯 편은 비극적이고 비현실적인 결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말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다. 즉, 현실적인 시각에서 보면 비극적이고 초현실적인 시각에서 보면 해피엔딩이다. 비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의 주인공들이 다 현실계에서 자신이 추구하던 것을 실현하지 못한 채 현실적인 삶을 마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이 죽거나 종적을 알 수 없게 된 결말을 맞이한 것은 그들이 초현실세계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기 위한 자유의지의 선택[79]이기 때문에 초현실세계에 있어서는 해피엔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금오신화』는 이중적인 결말을 통해 작중 주인공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

주었다. 그 중의 미래는 바로 작가의 현실초월의식의 산물이라고 하겠다.

79) 서규태, 「금오신화의 구조와 작가의식」, 『어문논집』 제 24-25집, 안암어문학회, 1985, p.646.

Ⅶ. 맺음말

김시습은 조선 초기에 나타난 위대한 문학가요, 불우한 정치가요, 시대를 고뇌하던 사상가였다. 그는 천부적인 재능으로 말미암아 조정에까지 그 이름이 알려져 일찍이 장래가 촉망되던 인재였다. 그러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시습은 제대로 꽃다운 꽃도 피워 보지 못하고 삶을 마감해야 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한 그 자체이다. 그가 유일하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문학이었다. 즉, 김시습은 그의 작품세계를 통해 혼돈과 모순으로 둘러싸인 사회와 자신의 삶의 고뇌를 형상화시켜 나타내었던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습의 한스런 삶을 바탕으로 생성된 김시습 고유의 작가의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작가의식을 형성하게 된 배경으로 생애와 정치 및 사회적 배경, 그리고 문학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불우했던 가정환경, 패도가 횡행하는 시대상황, 관인과 처사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방외인의 문학이 그로 하여금 고유한 작가의식을 형성하게 된 주요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배경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김시습의 전반적인 작가의식으로, 귀신에 대한 고찰, 문학에 대한 생각, 사상적인 측면을 서술하였다. 귀신은 김시습 문학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요소이다. 귀신을 정귀와 사귀로 나누어 구분하고, 이러한 귀신의 등장을 통해 현실의 불의함과 원통함을 고발하고 있다. 문학적으로는 당시의 제도적인 문학관에서 탈피하고, '人間不見書'와 '風流奇話'라는 문학관을 드러내고 있다. 즉, 문학의 허구성과 흥미성에 동의하면서 현실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이상세계를 표현하는 도구로서 문학을 바라보았던 것이다. 사상적으로는 유불도의 융합을 통해 자신만의 주관을 드러내고 있다. 근본 유학자의 정신을 추구하면서도 불교의 선종과 도선 사상에 몰입했음은 유교에서 이루지 못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자기 구제의 방책으로 선택한 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김시습의 전반적인 작가의식을 바탕으로 문학사적으로 가치가 높은『금

오신화』를 분석함으로써, 작품 속에 담겨져 있는 김시습의 작가의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아반영의식'은 『금오신화』에 나타나 있는 작가 김시습의 모습을 말한다. 우리는 『금오신화』속 주인공들의 성격과 언행에서 작가 김시습의 생애와 욕망을 엿볼 수 있다. <만복사저포기>의 양생, <이생규장전>의 이생, <취유부벽정기>의 홍생, <남염부주지>의 박생, <용궁부연록>의 한생은 모두 김시습의 분신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유학자들로서 재주와 학식이 뛰어나지만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었던 외로운 유학자 김시습의 모습이 각 작품을 통해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2) '현실비판의식'은 크게 절의정신, 애민정신, 역사정신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절의정신은 주로 여주인공의 삶을 통해 지향하는 바이다. <만복사저포기>의 여인, <이생규장전>의 최랑, <취유부벽정기>의 기씨녀를 통해 목숨까지도 희생하며 지키고자 하는 강한 절의정신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절의정신은 그 당시 세조의 정권에 아부하며 자신의 절개와 충정을 미련없이 버렸던 당시 지배층을 따끔하게 질책하고 비판하고 있다.

애민정신은 <남염부주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민본주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며 천명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염왕의 견해는 결국 현 정권(세조정권)에 대한 김시습의 우의적인 비난인 것이다. 군주의 자질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함으로 참다운 군주의 모습을 잃어버린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역사정신은 <취유부벽정기>를 통해 엿볼 수 있다. 기자조선에 의한 우리의 정통적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당대의 모순되고 왜곡된 역사인식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또한, 김시습은 기씨녀를 통해 과거의 왕권을 회고함으로 '왕권의 단절'이라는 현실의 부조리함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3) ‘현실초월의식’은 이상세계 설정과 비극적· 비현실적 결말을 통해 엿볼 수 있다. <남염부주지>의 염부주를 통해 정직한 왕이 다스리는 질서 있는 세계를, <용궁부연록>의 용궁을 통해 문학적인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문장왕국을 그려봄으로써 김시습은 현실을 초월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작품의 비극적· 비현실적 결말은 시습의 현실초월의식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작품의 주인공들이 죽거나, 不知所終으로 결말을 맞는 것은 현실계에서 자신이 추구할 수 없었던 것을 초현실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자유의지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품『금오신화』에는 작가 김시습의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작품 속에서 그는 불만족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고, 불의와 패도가 판치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을 초월해 정의로운 이상세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욕망을 나타내고 있다. 방외인으로 한평생을 살았던 그의 한이 결국『금오신화』를 통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시습의 문학작품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앞으로 김시습의 삶과 의식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金時習,『매월당집』, (갑인자본).
_____,『매월당 전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편).
심경호 역,『金鰲新話』, 홍익출판사, 2000.

2. 단행본

김광순,『한국고소설사』, 국학자료원, 2001.
김명순,『고전소설의 비극성 연구』, 창학사, 1986.
김진두,『김시습의 문학연구』, 형설출판사, 1996.
김태준,『증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민병수,『한국문학작가론』, 형설출판사, 1977.
박태상,『조선조 애정소설연구』, 태학사, 1997.
박태상, 윤용식,『고전소설론』, 방송대출판부, 1999.
설성경,『고소설의 구조와 의미』, 새문사, 1986.
설중환,『금오신화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심경호,『김시습평전,』 돌베개, 2003.
이상택·윤용식 공저,『고전소설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8.
정병욱,『한국고전의 재인식』, 홍성사, 1979.
정주동,『매월당 金時習 硏究』, 신아사, 1965.
최귀묵,『김시습의 사상과 글쓰기』, 서울대, 1997.
최삼룡,『한국초기소설의 도선사상』, 형설출판사, 1982.

한영환, 『한·중·일 소설의 비교연구』, 정음사, 1985.

3. 연구논문

권순열, 「만복사저포기 연구」, 『국어국문학 제7호』, 조선대학교, 1985.
_____, 「남염부주지 연구」, 『인문과학연구 제13호』, 조선대학교, 1991.
_____, 「취유부벽정기 연구」, 『인문과학연구 제14호』, 조선대학교, 1992.
김갑진, 「金鰲新話硏究」-작가의식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김성기, 「만복사저포기에 대한 심리적 고찰」, 『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문화사, 1981.
_____, 「남염부주지에 나타난 사상성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김진두, 「금오신화와 전등신화의 비교연구」, 공주대학교 인문논집 21집, 1983.
_____, 「南炎浮洲志에 나타난 東峯의 愛人精神考」, 공주대학교 논문집 24집, 1986.
김진욱, 「金鰲新話硏究」,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노영미, 「金鰲新話에 나타난 작가의식 」,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박성의, 「비교문학적 견지에서 본 금오신화와 전등신화」, 『문리논집』 2, 고려대학교, 1958.
박희승, 「금오신화의 심리표출양상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서규태, 「금오신화의 구조와 작가의식」, 『어문논집』 제 24-25집, 안암어문학회, 1985.
설중환, 「금오신화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송주익, 「금오신화의 작가의식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송창순, 「금오신화의 심층심리연구」, 『기순어문학』, 수원대학교 국문학회, 1991.
신혜숙, 「金鰲 新話의 作家意識 硏究」,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안창수, 「금오신화의 의미구조와 작가의식」, 『한민족어문학』, 한민족어문학회, 1994.
오종근, 「금오신화의 종합적 고찰」,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윤채근, 「금오신화의 미적원리와 반성적 주체」, 『고전문학연구』 14,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8.
이길원, 「금오신화에 나타난 김시습의 사상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이용호, 「금오신화의 근원적 사상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이성희, 「金鰲新話에 나타난 작가의식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이상익, 「한중소설의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회』 제 2집, 1972.
이상택, 「취유부벽정기의 도가적 문화의식」, 『한국고전소설의 탐구』, 중앙출판사, 1981.
이혜순, 「금오신화」, 『완암 김진세선생 회갑기념논문집』, 집문당, 1990.
이혜숙, 「금오신화에 나타난 인귀교환소설의 유형적 고찰」, 『이숭년선생고희기념국어국문학논총』, 탑출판사, 1977.
_____, 「청한자 김시습의 사상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임형택, 「현실주의적 세계관과 금오신화」, 『국문학연구』 13, 서울대학교 국문학연구회, 1971.
장선희, 「김시습 문학의 도선사상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정군수, 「김시습의 소설관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조광이, 「금오신화의 사상성고찰」,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최일범, 「매월당의 철학사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최현옥, 「금오신화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한 릉, 「金鰲新話와 剪燈新話의 作家意識 比較硏究」,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홍대봉, 「금오신화에 나타난 김시습의 사상연구」, 중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